

한국인의 연령·성별에 따른 외식행동 비교

박주원·안숙자
중앙대학교 가정교육학과
(2001년 6월 23일 접수)

A Comparative Study on Korean's Dining-Out Behaviors Classified by Age and Gender

Joo-Won Park and Sook-Ja Ahn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Received June 23, 2001)

Abstract

In this paper, Korean's dining-out behaviors were compared and investigated according to gender and age. The change and the problem of dietary pattern in Korea were understood and we intend to provide the basic information for guidelines of Korean's dietary habits.

The subjects are composed of 46.5% male and 53.5% female. According to age, groups aged 10~19 are 26.3%, 20's are 24.6%, 30's are 16.8%, 40's are 18.7%, and 50 and over age group is 13.6%. All of the age groups ate out for celebration of a special day or for social purposes. When dining-out, the most important criteria for selecting a restaurant was the taste of food. All age groups liked Korean-style restaurants the most. All age group eat a house meal at breakfast. At lunch, age groups 40 and below go to a restaurant in school or company and 50 and over age group eats house meal. In general, all age groups ate a house meal at dinner. At breakfast, all the age groups do not eat out. For lunch, they eat out four or five times a week. For dinner, the most of age groups except the 20's eat out two or three times a month and for the 20's age group, two or three times a week. The reason for selecting a Korean-style restaurant is that the food is "well matched with one's appetite". According to the above results, the dietary habits of 30 and over age groups are relatively good. On the other hand, in 10's and 20's age groups, they have an irregular meal and the ratio of skipping a meal is high. And they frequently use fast-food restaurants. In the future, the unbalance of nutrition in these age groups is expected. Therefore, the correct nutritional facts should be educated so that these age groups have a healthy dietary habit.

Key Words : dietary habits, gender, age, dining-out, house meal

I. 서론

최근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 식품산업의 발달 등으로 식생활의 발전속도가 가속화되면서 국민

의 식생활 성향이 변해 가정내에서의 식사 준비 시간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식생활 현상이 가정 안에서 밖으로 확대되는 식생활의 외식화와 외식산업이 성장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 외식비의 소비지출비율은 75년에

22%, 85년에 7.6%였는데, 90년대에는 급격히 증가되어 90년에 21.2%, 97년에는 35.5%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88 올림픽은 우리 나라 외식문화를 크게 신장시켰다.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여가증대의 사회적 분위기로 먹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 식도락 인구의 증가로 외식 산업은 더욱 성장하여 최근 약 20조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다^{1,2)}.

우리 나라의 외식산업은 대중 음식점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는데, 대중 음식점 가운데 한식점은 80년대에는 60~70%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그 후 10년 동안에는 아주 느린 속도로 구성비의 감소를 보였다. 반면, 일식점 및 양식점의 구성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일식점은 81년 1.7%에서 95년 3.3%로 늘어났으며 양식점은 81년 5.6%에서 95년 10.9%로 증가되었다.

중국음식점은 80년대 초에는 한식점 다음으로 규모가 큰 제 2의 외식업종이었으나 음식점 중 가장 큰 감소를 보여 95년도에는 9.7%까지 감소하였다. 간이 음식점(분식점)은 83년 4.9%에서 95년 10.3%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³⁾. 그리고 Fast food점과 패밀리 레스토랑은 빠른 성장을 하였는데 Fast food점은 1979년 롯데리아의 개점을 시작으로 햄버거, 후라이드치킨 등을 주력메뉴로 하는 다양한 체인점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확대도 가속화하고 있다. Fast Food점은 주문처리 시간의 신속함, 신세대풍 실내 디자인, 간편함 등으로 젊은 층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성장하고 있다. 패밀리 레스토랑은 1988년 코코스(Coco's)가 국내에 처음 들어온 이후 TGIF, 스카이라, 시즐러, 베니건스, 마르쉐 등의 패밀리 레스토랑이 90년대에 들어와서 소비자의 폭발적인 인기와 함께 외식시장을 주도하게 되었다⁴⁾. 그러나 패스트푸드를 비롯한 외식업체들이 제조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값싼 수입 농산물을 사용하는 등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젊은 세대의 맹목적인 서구음식의 선호는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한국 음식점은 우리의 고유 음식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선호하는 음식점인데도 서비스와 위생성, 낙후한 음식점의 분위기, 불필요한 반찬으로 인한 잔반음식의 재사용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⁴⁻⁵⁾.

지금까지 외식행동에 대한 연구는,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 연구한 것은 많았지만,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외식행동 변화를 비교 조사한 연구는 미약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식행동을 성별·연령별로 비교·조사하여 한국인의 외식행동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여

이를 한국인의 식생활 지침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조사는 서울지역의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2000년 6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하였다. 강북구에 위치하고 있는 C중학교, 강서구에 위치하고 있는 H고등학교, 동작구에 위치하고 있는 C대학교에서 각각 동일 가족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780부를 배부하여 650부가 회수(회수율:83%)되었으며 통계처리에 부적당한 자료를 제외한 589부를 분석대상으로 사용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조사내용은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사항, 외식행동을 알아보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사항은 성별, 연령, 직업, 가족형태, 교육수준을 조사하였다. 외식행동은 외식동기, 매끼니 식사형태, 외식횟수, 외식시 선호하는 음식점, 각 음식점에서 선호하는 음식, 음식점 선택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 한식점에 바라는 요구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3. 자료의 분석방법

조사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8.0 for windows를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사항은 각 조사항목에 대해 응답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외식행동에 대해서는 연령별·성별로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빈도와 백분율을 구한 다음, Chi-square test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Table 1>에서와 같이 남자 46.5%(274명), 여자 53.5%(315명)이었으며, 연령대 별로 보면 10-19세 26.3%(155명), 20-29세 24.6%(145명), 30-39세 16.8%(99명), 40-49세 18.7%(110명), 50대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n(n=589)	%	General characteristics		n(n=589)	%
Gender	Males	274	46.5	Type of residence	Own house	534	90.7
	Females	315	53.5		Home stay	1	0.2
Age	10-19	155	26.3		Cooking for oneself	40	6.8
	20-29	145	24.6		Relative's house	6	1.0
	30-39	99	16.8		Boarding with a person	8	1.4
	40-49	110	18.7	Number of family	1	22	3.7
	≥50	80	13.6		2	41	7.0
Economic value	lower	37	6.3		3-4	399	67.7
	middle · lower	141	23.9		5-6	113	19.2
	middle	311	52.8	≥7	14	2.4	
	middle · upper	75	12.7	Family size	Small family	537	91.1
	upper	25	4.2		Large family	52	8.8
Occupation	middle · high school student	156	26.5	Educational level	elementary school	11	1.9
	college student · graduate student	144	24.4		middle school	18	3.1
	house wife	77	13.1		middle · high school student	157	26.7
	blue collar	16	2.7		high school	77	13.1
	service	22	3.7		above bachelor	326	55.3
	sales	15	2.5				
	office worker	57	9.7				
	administrative	17	2.9				
	professional	85	14.4				

이상 13.6%(80명)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이 인식하는 경제수준은 중류가 52.8%, 중·하류 23.9%, 중·상류 12.7% 등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의 직업은 중·고등학생 26.5%, 대학생 24.4%, 전문직 14.4%, 전업주부 13.1%, 사무직 9.7%, 서비스직 3.7% 등이었다. 거주형태는 대부분(90.7%) 이 자택거주였다. 가족수는 3-4인이 67.7%, 5-6인 19.2% 등이었다. 가족형태는 대부분(91.1%)이 핵가족이었다. 교육수준은 대학교 재학·졸업이상이 55.3%, 고등학교 졸업이 13.1%, 중학교 졸업이 3.1%, 초등학교 졸업 1.9%, 그리고 중·고등학생이 26.7%였다.

2. 외식행동

1) 외식 동기 및 외식점 선택시 중요성

외식행동으로 외식 동기, 외식시 음식선택 기준, 음식점 선택 경로, 선택하는 음식의 종류를 연령별·성별에 따라 조사한 내용은 <Table 2>와 같았다.

'외식을 하는 동기'에 대해서 연령대별로 보면 10대(36.1%)와 40대(30.9%)는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으며 20대는 '사교적인 목적'으로 외식을 하는 비율(33.1%)이 높았고, 30대는

'식사준비하기가 번거로워서' 외식을 하는 비율(22.2%)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으며 50대 이상은 '맛을 즐기기 위해서' 외식을 하는 비율이(33.8%)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p<.001$). 남·녀별로 보면 남자는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외식을 하는 비율(27.4%)이 높았으며 여자는 '맛을 즐기기 위해서' 외식을 하는 비율(29.2%)이 높았다. 1989년에 주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임 등⁶⁾의 연구에서는 외식하는 이유가 '가족과의 단란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으며, 1989년 김⁷⁾의 연구에서 외식의 이유는 20대-30대는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였고, 40대는 '맛을 즐기기 위해서'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1991년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김⁸⁾의 연구와 1996년 직장남성을 대상으로 한 박 등⁹⁾의 연구에서는 외식의 이유가 '사교적인 목적'이라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1981년의 보고에서는 외식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점심에 도시락을 싸오지 않아서'로 나타나 80년대 초반의 외식¹⁰⁾은 '끼니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가, 그 이후 가족단위의 레저활동 또는 사교적인 목적 등의 의미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식시 음식점 선택을 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모든 연령대가 '맛'을 기준으로 음식점을 선택하는 비율

<Table 2> Dining out behaviors by age and gender

n(%)

		10-19	20-29	30-39	40-49	≥50	Total	Males	Females
Motivation of dining out	For social purpose	19(12.3)	48(33.1)	17(17.2)	17(15.5)	18(22.5)	119(20.2)	50(18.2)	69(21.9)
	To enjoy taste of food	49(31.6)	36(24.8)	19(19.2)	31(28.2)	27(33.8)	162(27.5)	70(25.5)	92(29.2)
	To just eat a meal	16(10.3)	34(23.4)	20(20.2)	18(16.4)	10(12.5)	98(16.6)	41(15.0)	57(18.1)
	To commemorate special day	56(36.1)	17(11.7)	18(18.2)	34(30.9)	13(16.3)	138(23.4)	75(27.4)	63(20.0)
	Botheration of setting the table	15(9.7)	8(5.5)	22(22.2)	8(7.3)	1(1.3)	54(9.2)	25(9.1)	29(9.2)
	Not preparing a lunch box	0(0)	2 (1.4)	3(3.0)	2(1.8)	11(13.8)	18(3.1)	13(4.7)	5(1.6)
$\chi^2=120.698^{***}$							$\chi^2=10.727$		
Criterion of selecting restaurants	Nutrition	6(3.9)	1(0.7)	2(2.0)	9(8.2)	14(17.5)	32(5.4)	12(4.4)	20(6.3)
	Taste(Flavor)	86(55.5)	79(54.5)	56(56.6)	55(50.0)	34(42.5)	310(52.6)	138(50.4)	172(54.6)
	Amount	5(3.2)	3(2.1)	2(2.0)	2(1.8)	0(0)	12(2.0)	8(2.9)	4(1.3)
	Price	6(3.9)	12(8.3)	7(7.1)	3(2.7)	15(18.8)	43(7.3)	32(11.7)	11(3.5)
	Sanitation	5(3.2)	3(2.1)	2(2.0)	3(2.7)	1(1.3)	14(2.4)	10(3.6)	4(1.3)
	Kind of food	41(26.5)	31(21.4)	27(27.3)	37(33.6)	12(15.0)	148(25.1)	61(22.3)	87(27.6)
	Atmosphere of restaurant	2(1.3)	15(10.3)	3(3.0)	1(0.9)	4(5.0)	25(4.2)	11(4.0)	14(4.4)
	Service	4(2.6)	1(0.7)	0(0)	0(0)	0(0)	5(0.8)	2(0.7)	3(1.0)
$\chi^2=92.873^{***}$							$\chi^2=22.271^{**}$		
Source of selecting restaurants	Advertisement of TV/Radio	12(7.7)	4(2.8)	2(2.0)	5(4.5)	1(1.3)	24(4.1)	12(4.4)	12(3.8)
	Advertisement of newspaper	23(14.8)	4(2.8)	7(7.1)	11(10.0)	0(0)	45(7.6)	26(9.5)	19(6.0)
	Family / Friends	90(58.1)	106(73.1)	68(68.7)	73(66.4)	67(83.8)	404(68.6)	186(67.9)	218(69.2)
	Internet	1(0.6)	6(4.1)	5(5.1)	0(0)	0(0)	12(2.0)	6(2.2)	6(1.9)
	Door plate	29(18.7)	25(17.2)	17(17.2)	21(19.1)	12(15.0)	104(17.7)	44(16.1)	60(19.0)
$\chi^2=49.540^{***}$							$\chi^2=3.247$		
When dining out, a kind of selecting food	Korean-style food	61(39.4)	50(34.5)	60(60.6)	87(79.1)	46(57.5)	304(51.6)	134(48.9)	170(54.0)
	Western-style food	29(18.7)	25(17.2)	16(16.2)	4(3.6)	4(5.0)	78(13.2)	39(14.2)	39(12.4)
	Japanese-style food	15(9.7)	7(4.8)	5(5.1)	6(5.5)	18(22.5)	51(8.7)	31(11.3)	20(6.3)
	Chinese-style food	9(5.8)	9(6.2)	1(1.0)	6(5.5)	8(10.0)	33(5.6)	22(8.0)	11(3.5)
	Fast food(western style)	25(16.1)	45(31.0)	13(13.1)	4(3.6)	1(1.3)	88(14.9)	34(12.4)	54(17.1)
	Convenient food(Korean style)	16(10.3)	9(6.2)	4(4.0)	3(2.7)	3(3.8)	35(5.9)	14(5.1)	21(6.7)
$\chi^2=131.458^{***}$							$\chi^2=13.459^*$		

* p<.05 ** p<.01 *** p<.001

(42.5%~56.6%)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50대를 제외하고는 '음식의 종류' (21.4%~33.6%)였다. 50대 이상은 '가격' (18.8%), '영양' (17.5%)으로 음식점을 선택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고 20대는 '음식점의 분위기'를 다른 연령대에 비해 중요하게 인식하였다(p<.001). 남녀별로 보면 남·녀 모두 음식의 '맛'을 기준으로 음식점을 선택하는 비율(50.4%, 54.6%)이 가장 높았으며 '음식의 종류'를 기준으로 음식점을 선택하는 비율은 여자(27.6%)가 남자(22.3%)보다 약간 높았으며, 남자는 '가격'을 기준으로 음식점을 선택하는 비율(11.7%)이 여자(3.5%)에 비해 높았다(p<.01). 1986년, 1991년 10대와 20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김 등¹¹⁾, 광 등¹²⁾의 연구에 의하면 음식점을 선택할 때, '음식의

맛'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비율(46.3%, 79.3%)이 가장 높았으며, 1995년, 1997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구¹³⁾와 조¹⁴⁾의 연구에서도 '음식의 맛'을 기준으로 음식점을 선택하는 비율(84.0%, 84.5%)이 가장 높았다. 음식점을 선택할 때 어디에서 정보를 얻는지에 대해서, 연령대별로 보면 모든 연령대가 '가족이나 친구'한테 정보를 얻는 비율(58.1%~83.8%)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50대 이상이 '가족이나 친구'한테 정보를 얻는 비율(83.8%)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p<.001). 남·녀별로 보면 남·녀 모두 '가족이나 친구'한테 정보를 얻는 비율(67.9%, 69.2%)이 가장 높았다. 1991년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김⁸⁾의 연구와, 1996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양 등¹⁵⁾의 연구에 의하

면 '가족·친구로부터 정보를 얻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아서 본 조사와 같았다.

'외식시 선택하는 음식의 종류'에 대해서 모든 연령대가 외식시 한식(34.5%~79.1%)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그 비율은 40대(79.1%)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20대가 외식으로 패스트푸드를 선택하는 비율(31.0%)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으며 10대는 간이음식점(분식점)을 선택하는 비율(10.3%)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p<.001$). 남·녀별로 보면 남·녀 모두 한식(48.9%, 54.0%)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한식과 패스트푸드를 선택하는 비율이 여자(54.0%, 17.1%)가 남자(48.9%, 12.4%)보다 높았으며, 일식을 선택하는 비율은 남자(11.3%)가 여자(6.3%)보다 높았다($p<.05$). 1974년 남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조¹⁶⁾의 연구에 의하면 '한식점'을 선호하는 비율이 50.75%, '중국음식점'을 선호하는 비율이 19.15%였으며, 1981년 이¹⁷⁾의 연구에서는 10대-20대는 '중국음식점(47.51%)'을 가장 선호하였고 30대-40대 이상은 '한식점(47.73%, 68.89%)'을 가장 선호하였고, 그 다음은 '중국음식점(21.97%, 16.13%)'이었다. 1994년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신 등¹⁸⁾의 연구에 의하면 '한식점'을 선호하는 비율(41.6%)이 높았으며, 그 다음은 '양식점(36.8%)'이어서 본 조사와 비슷하였다. 이로 보아 7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외식시 한식점을 가장 선호하였고, 1980년대 초반까지는 '한식점' 다음으로 '중국음식점'을 많이 선택하였지만, 최근에 와서는 양식점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2) 외식점의 선택 및 이용빈도

식사는 가정내 식사와 가정외식사(외식)로 분류된다. 이는 식사를 하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 만들어진 조리장소와 식사의 조정자가 누구냐에 따라 명칭이 달라진다. 즉, 가정에서 만든 음식이나 도시락을 학교 또는 직장에서 먹게 되면 가정내식사로 간주하고 음식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사온 도시락을 집에서 먹게 된 경우에는 외식으로 취급한다. 학교나 직장에서 먹는 집단급식은 외식에 속한다. 국민소득이 낮았던 과거의 외식은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현대의 외식은 영양보완 뿐 아니라 정신면과 사회면으로 다양한 기능을 갖게 되었으며 식생활의 일부로 중요한 기능을 갖게 되었다¹¹⁾. 과거에는 하루 세끼의 식사관리가 전적으로 가정에서 경연되어 왔음에 비하여 현대생활에서는 식사관리의 많은 부분이 외식 형태로 옮겨지고 있다.

연령별·성별 매끼니 식사 형태와 외식횟수는 <Table 3>과 같다.

'아침식사의 식사형태'에 대해 모든 연령대가 아침에 '가정식'을 먹는 비율(61.4%~91.8%)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40대가 아침에 '가정식'을 먹는 비율(91.8%)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그리고 결식을 하는 비율은 20대(31.0%)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으며 40대(7.3%)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았다($p<.001$). 남·녀별로는 남·녀 모두 아침에는 '가정식'을 먹는 비율(76.6%, 74.9%)이 높았다. 1989년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문 등¹⁹⁾의 연구에 의하면 아침을 '가정식'으로 먹는 비율이 90.5%였으며, '결식'하는 비율은 7.1%였으며, '외식'하는 비율은 2.3%로 본 조사보다 아침을 '가정식'으로 먹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결식'을 하는 비율이 본 조사에 비해 훨씬 낮았다.

'점심식사의 식사형태'에 대해서 연령대별로 보면 40대 이하는 '학교·직장 식당/매점'을 이용하는 비율(42.7%~78.7%)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1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학교 식당/매점'을 이용하는 비율(78.7%)이 높았다. 이것은 최근에 학교급식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50대 이상이 점심을 '가정식'을 먹는 비율(38.8%)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p<.001$). 남·녀별로 보면 남·녀 과반수 이상(65.7%, 51.4%)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학교·직장 식당/매점을 이용하였으며 남자(65.7%)가 학교·직장 식당/매점을 이용하는 비율이 여자(51.4%)보다 높았다. 그리고 가정식(도시락 포함)을 이용하는 비율은 여자(30.2%)가 남자(16.4%)보다 높았다($p<.001$). 1987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오²⁰⁾의 연구에 의하면 점심식사로 '외식'을 하는 비율이 51.1%, '가정식'을 먹는 비율은 33.8%로 본 조사의 20대보다 '외식'을 하는 비율이 낮았다. 1994년 남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안²¹⁾의 연구에 의하면 '가정식'을 먹는 비율이 79.2%, '외식'을 하는 비율은 18.1%로 본 조사의 10대보다 '외식'하는 비율이 매우 낮았다.

'저녁식사의 식사형태'를 연령대별로 보면 모든 연령대가 저녁을 '가정식'으로 먹는 비율(36.6%~80.0%)이 가장 높았다. 특히, 40대가 저녁을 '가정식'으로 먹는 비율(80.0%)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으며, 20대가 저녁을 '가정식'으로 먹는 비율(36.6%)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았다. 20대(24.1%)와 50대 이상(27.5%)이 저녁을 '음식점을 이용한 외식'으로 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고 20대는 저녁을 학교·직장 식당/매점을 이용하는 비율(30.3%)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p<.001$). 남·녀별로 보면 남·녀 모두 저녁에는 주로 '가정식'(61.7%, 67.6%)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가정식'을 하는 비율은 여자(67.6%)가 남자(61.7%)보다 높았으며 '외식'을 하는 비율은 남자

<Table 3> Each time meal pattern and frequency of dining out by age and gender

n(%)

		10-19	20-29	30-39	40-49	≥50	Total	Males	Females
Meal pattern (breakfast)	House meal	124(80.0)	89(61.4)	70(70.7)	101(91.8)	62(77.5)	446(75.7)	210(76.6)	236(74.9)
	dining out	4(2.6)	4(2.8)	1(1.0)	0(0)	1(1.3)	10(1.7)	6(2.2)	4(1.3)
	Restaurant in school or company	1(0.6)	5(3.4)	3(3.0)	1(0.9)	3(3.8)	13(2.2)	9(3.3)	4(1.3)
	Neighbourhood	0(0)	2(1.4)	0(0)	0(0)	0(0)	2(0.3)	0(0)	2(0.6)
	Skipping meal	26(16.8)	45(31.0)	25(25.3)	8(7.3)	14(17.5)	118(20.0)	49(17.8)	69(21.9)
$\chi^2=43.331^{***}$							$\chi^2=6.406$		
Meal pattern (lunch)	House meal	30(19.4)	22(15.2)	22(22.2)	35(31.8)	31(38.8)	140(23.8)	45(16.4)	95(30.2)
	dining out	3(1.9)	32(22.1)	16(16.2)	23(20.9)	21(26.3)	95(16.1)	48(17.5)	47(14.9)
	Restaurant in school or company	122(78.7)	88(60.7)	58(58.6)	47(42.7)	27(33.8)	342(58.1)	180(65.7)	162(51.4)
	Neighbourhood	0(0)	0(0)	3(3.0)	5(4.5)	0(0)	8(1.4)	1(0.4)	7(2.2)
	Skipping meal	0(0)	3(2.1)	0(0)	0(0)	1(1.3)	4(0.7)	0(0)	4(1.3)
$\chi^2=92.164^{***}$							$\chi^2=24.580^{***}$		
Meal pattern (dinner)	House meal	121(78.1)	53(36.6)	66(66.7)	88(80.0)	54(67.5)	382(64.9)	169(61.7)	213(67.6)
	dining out	25(16.1)	35(24.1)	17(17.2)	15(13.6)	22(27.5)	114(19.4)	67(24.5)	47(14.9)
	Restaurant in school or company	6(3.9)	44(30.3)	15(15.2)	6(5.5)	3(3.8)	74(12.6)	35(12.8)	39(12.4)
	Neighbourhood	09(0)	1(0.7)	1(1.0)	1(0.9)	0(0)	3(0.5)	2(0.7)	1(0.3)
	Skipping meal	3(1.9)	12(8.3)	0(0)	0(0)	1(1.3)	16(2.7)	1(0.4)	15(4.8)
$\chi^2=114.488^{***}$							$\chi^2=18.613^{**}$		
Frequency of dining out (breakfast)	None	138(89.0)	106(73.1)	84(84.8)	101(91.8)	64(80.0)	493(83.7)	221(80.7)	272(86.3)
	1 time per a month	6(3.9)	12(8.3)	6(6.1)	3(2.7)	8(10.0)	35(5.9)	22(8.0)	13(4.1)
	2-3 times per a month	3(1.9)	10(6.9)	2(2.0)	3(2.7)	5(6.3)	23(3.9)	13(4.7)	10(3.2)
	1 time per a week	3(1.9)	3(2.1)	2(2.0)	0(0)	1(1.3)	9(1.5)	4(1.5)	5(1.6)
	2-3 times per a week	1(0.6)	7(4.8)	1(1.0)	1(0.9)	0(0)	10(1.7)	2(0.7)	8(2.5)
	4-5 times per a week	4(2.6)	7(4.8)	4(4.0)	2(1.8)	2(2.5)	19(3.2)	12(4.4)	7(2.2)
$\chi^2=33.448^*$							$\chi^2=10.204$		
Frequency of dining out (lunch)	None	46(29.7)	7(4.8)	8(8.1)	24(21.8)	2(2.5)	87(14.8)	42(15.3)	45(14.3)
	1 time per a month	32(20.6)	8(5.5)	5(5.1)	22(20.0)	5(6.3)	72(12.2)	32(11.7)	40(12.7)
	2-3 times per a month	25(16.1)	18(12.4)	10(10.1)	11(10.0)	12(15.0)	76(12.9)	34(12.4)	42(13.3)
	1 time per a week	17(11.0)	12(8.3)	14(14.1)	7(6.4)	8(10.0)	58(9.8)	25(9.1)	33(10.5)
	2-3 times per a week	5(3.2)	22(15.2)	13(13.1)	8(7.3)	6(7.5)	54(9.2)	16(5.8)	38(12.1)
	4-5 times per a week	30(19.4)	78(53.8)	49(49.5)	38(34.5)	47(58.8)	242(41.1)	125(45.6)	117(37.1)
$\chi^2=127.272^{***}$							$\chi^2=9.357$		
Frequency of dining out (dinner)	None	13(8.4)	5(3.4)	5(5.1)	16(14.5)	3(3.8)	42(7.1)	18(6.6)	24(7.6)
	1 time per a month	33(21.3)	12(8.3)	5(5.1)	27(24.5)	5(6.3)	82(13.9)	41(15.0)	41(13.0)
	2-3 times per a month	57(36.8)	17(11.7)	27(27.3)	31(28.2)	22(27.5)	154(26.1)	76(27.7)	78(24.8)
	1 time per a week	22(14.2)	24(16.6)	26(26.3)	14(12.7)	22(27.5)	108(18.3)	44(16.1)	64(20.3)
	2-3 times per a week	20(12.9)	47(32.4)	21(21.2)	16(14.5)	20(25.0)	124(21.1)	49(17.9)	75(23.8)
	4-5 times per a week	10(6.5)	40(27.6)	15(15.2)	6(5.5)	8(10.0)	79(13.4)	46(16.8)	33(10.5)
$\chi^2=119.896^{***}$							$\chi^2=9.369$		

* p<.05 ** p<.01 *** p<.001

(24.5%)가 여자(14.9%)보다 높았다(p<.01). 1989년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문 등¹⁹⁾의 연구에 의하면 저녁을 '가정식'으로 먹는 비율이 89.2%, '외식'하는 비율은 9.7%로 본 조사보다 '외식'하는 비율은 낮고

'가정식'으로 먹는 비율은 높았다.

'아침의 외식횟수'에 대해서는 40대가 아침에 외식을 하지 않는 비율(91.8%)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으며 20대(73.1%)가 가장 낮았다(p<.05). 남·녀별로 보

면 남·녀 모두 아침에는 외식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노²²⁾의 연구에 의하면 아침에 '외식을 거의 하지 않는다'가 85.2%로 본 조사의 20대와 같았다.

'점심의 외식 횟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주일에 4-5번 정도' 외식을 하는 비율(41.1%)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하지 않는다(14.8%)', '한달에 2-3번(12.9%)', '한달에 1번(12.2%)' 순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상이 '일주일에 4-5번' 정도 외식을 하는 비율(34.5%~53.8%)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으며 10대는 외식을 거의 하지 않는 비율(29.7%)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p<.001). 남·녀별로 보면 남·녀 모두 점심식사는 '일주일에 4-5번' 정도 외식을 하는 비율(45.6%, 37.1%)이 가장 높았다.

'저녁의 외식횟수'에 대해서 연령대별로 보면 10대와 40대는 '한 달에 2-3번' 정도 외식을 하는 비율(28.2%~36.8%)이 높았으며, 30대와 50대는 과반수 이상(약 60.0%)이 '일주일에 1회 이상' 외식을 하였고, 20대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외식을 하였다. 특히, 20대는 '일주일에 4-5번' 정도 외식을 하는 비율(27.6%)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이로 보아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저녁에 외식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남·녀별로 보면 남·녀 모두 저녁식사에 '한 달에 2-3번' 정도 외식을 하는 비율(27.7%, 24.8%)이 가장 높았다. 외식하는 횟수에 대해서 선행연구들을 고찰해보면 1980년 대전지역의 주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김²³⁾의 연구에 의하면 '한 달에 1회' 외식하는 비율이 71.7%였으며, 1991년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김⁸⁾의 연구에서는 '한 달에 2-3회 이상' 외식하는 비율이 42.1%, 1996년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이 등²⁴⁾의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1-2회 이상' 외식하는 비율이 55.7%로 외식빈도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연령별·성별에 따른 '외식이유'에 대해서 조사한 표는 <Table 4>와 같았다.

'아침에 외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모든 연령대가 '집에서 밥을 먹을 시간이 없어서(26.3%)' 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대 이하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p<.05). 남·녀별로 보면 남·녀 모두 '집에서 밥을 먹을 시간이 없어서(26.6%, 26.0%)' 외식을 하는 비율이 높았다.

'점심에 외식을 하는 이유'에 대해 연령대별로 보면 40대는 '모임이나 친구와의 약속이 있어서(39.1%)', 20대 이하는 '외식을 하는 것이 더 간편하므로(34.2%~

<Table 4> Motivation of dining out by age and gender

							n(%)		
		10-19	20-29	30-39	40-49	≥50	Total	Males	Females
Motivation of dining out -breakfast	No time to eat	45(29.0)	58(40.0)	19(19.2)	17(15.5)	16(20.0)	155(26.3)	73(26.6)	82(26.0)
	More delicious, when dining out	8(5.2)	3(2.1)	0(0)	1(0.9)	3(3.8)	15(2.5)	10(3.6)	5(1.6)
	To meat with friends	2(1.3)	4(2.8)	5(5.1)	5(4.5)	1(1.3)	17(2.9)	9(3.3)	8(2.5)
	Botherance of setting table	8(5.2)	7(4.8)	6(6.1)	0(0)	3(3.8)	24(4.1)	13(4.7)	11(3.5)
	Convenience of dining out	17(11.0)	8(5.5)	4(4.0)	6(5.5)	1(1.3)	36(6.1)	19(6.9)	17(5.4)
	Have not ever eaten out	75(48.4)	65(44.8)	65(65.7)	81(73.6)	56(70.0)	342(58.1)	150(54.7)	192(61.0)
		$\chi^2=30.959^*$					$\chi^2=3.522$		
Motivation of dining out -lunch	More delicious, when dining out	16(10.3)	2(1.4)	8(8.1)	8(8.1)	11(13.8)	45(7.6)	17(6.2)	28(8.9)
	To meat with friends	34(21.9)	44(30.3)	25(25.3)	43(39.1)	23(28.8)	169(28.7)	59(21.5)	110(34.9)
	Botherance of setting table	9(5.8)	6(4.1)	1(1.0)	3(2.7)	2(2.5)	21(3.6)	9(3.3)	12(3.8)
	Convenience of dining out	53(34.2)	52(35.9)	22(22.2)	26(23.6)	7(8.8)	160(27.2)	82(29.9)	78(24.8)
	Not preparing a lunch box	43(27.7)	41(28.3)	43(43.4)	30(27.3)	37(46.3)	194(32.9)	107(39.1)	87(27.6)
		$\chi^2=53.765^{***}$					$\chi^2=17.903^{**}$		
Motivation of dining out -dinner	More delicious, when dining out	34(21.9)	5(3.4)	11(11.1)	12(10.9)	10(12.5)	72(12.2)	23(8.4)	49(15.6)
	To meat with friend	44(28.4)	83(57.2)	36(36.4)	70(63.6)	46(57.5)	279(47.4)	142(51.8)	137(43.5)
	Botherance of setting table	12(7.7)	8(5.5)	8(8.1)	8(7.3)	6(7.5)	42(7.1)	11(4.0)	31(9.8)
	Convenience of dining out	59(38.1)	32(22.1)	36(36.4)	17(15.5)	13(16.3)	157(26.7)	74(27.0)	83(26.3)
	Not preparing a lunch box	6(3.9)	17(11.7)	8(8.1)	3(2.7)	5(6.3)	39(6.6)	24(8.8)	15(4.8)
		$\chi^2=78.261^{***}$					$\chi^2=18.832^{**}$		

* p<.05 ** p<.01 *** p<.001

35.9%’, 30대(43.4%)와 50대 이상(46.3%)은 ‘도시락을 싸오지 않아서’였다($p<.001$). 남·녀별로 보면 남자(39.1%)는 ‘도시락을 싸오지 않아서’ 외식을 하는 비율이 여자(27.6%)보다 높았으며 여자(34.9%)는 ‘모임이나 친구와의 약속’이 있어서 외식을 하는 비율이 남자(21.5%)에 비해 높았다($p<.01$). 1985년의 보고²⁵⁾에 의하면 점심에 외식을 많이 하는 이유에 대해서 ‘편리하기 때문에’가 37.4%, ‘도시락을 싸오지 않아서’가 12.9%였다. 1989년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안²⁶⁾의 연구에서는 ‘편리함’이라고 답한 비율이 87.2%로 본 조사의 20대가 점심에 외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편리함’ 때문이라고 응답한 것과 일치하였다.

‘저녁에 외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연령대별로 보면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가 ‘모임이나 친구와의 약속이 있어서’ 외식을 하는 비율(36.4%~63.6%)이 가장 높았는데 ‘모임이나 친구와의 약속이 있어서’ 외식을 하는 비율은 40대(63.6%)가 가장 높았으며, 10대는 ‘외식을 하는 것이 더 간편하기 때문에’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p<.001$). 남·녀별로 보면 남자(51.8%)가 ‘모임이나 친구와의 약속이 있어서’ 외식을 하는 비율이 여자(43.5%)보다 더 높았다($p<.01$). 1992년 주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김²⁷⁾의 연구에 의하면 ‘가족·친구 모임이 있어서 외식을 한다(51.5%)’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맛을 즐기기 위해서(29.0%)’로 본 조사와 같은 경향이였다.

‘선호하는 음식점’을 연령별·성별로 조사한 내용은 <Table 5>와 같았다.

‘가족과 외식할 때 선호하는 음식점’은 모든 연령대가 ‘한식점’을 선호하는 비율(55.5%~74.5%)이 높았는데, 특히 40대(74.5%)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한식점’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10대(55.5%)가 ‘한식점’을 선호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았고 ‘양식점’을 선호하는 비율(22.6%)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p<.001$). 남·녀별로 보면 남·녀 모두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할 때 ‘한식점’을 선호하는 비율(60.9%, 70.2%)이 가장 높았다. 1989년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안²⁶⁾의 연구와, 1994년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안²¹⁾의 연구, 1996년 주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문 등²⁸⁾의 연구에서 모두 가족과 함께 외식할 때 ‘한식점’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본 조사와 같은 결과였다.

‘사교장소로서 선호하는 음식점’을 연령대별로 보면 10대(46.5%)와 20대(39.3%)는 사교장소로서 ‘패스트푸드점’을 선호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으며, 10대는 사교장소로서 ‘간이 음식점(분식점)’을 선호하는 비율(30.3%)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30대 이상은 사교장소로서 ‘한식점’을 선호하는 비율

이(45.0%~68.2%)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으며, 50대 이상은 ‘일식점’을 선호하는 비율(42.5%)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p<.001$). 남·녀별로 보면 ‘한식점’을 선호하는 비율은 남자(39.8%)가 여자(32.4%)보다 높았으며 ‘패스트푸드점’을 선호하는 비율은 여자(26.0%)가 남자(21.2%)보다 높았다($p<.01$). 1996년에 주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문 등²⁸⁾의 연구에 의하면 사교적인 목적으로 외식을 할 때, ‘한식점’을 가장 선호하였고, 그 다음으로 중국음식점, 양식점, 일식점, 패스트푸드점 순으로 선호하여서 본 조사의 여자와 같은 경향을 보였으며, 1999년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조²⁹⁾의 연구에서 ‘패스트푸드점을 선호하는 비율이 78.1%로 본 조사에서 10대들의 46.5%보다 높았다.

‘아침 일상식으로 선호하는 음식점’을 연령대별로 보면 모든 연령대가 ‘한식점’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으며, 30대 이상(67.5%~70.9%)이 20대 이하(47.1%~49.7%)보다 ‘한식점’을 선호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20대 이하가 ‘패스트푸드점(11.6%~11.7%)’과 ‘구내식당/매점(25.8%~30.3%)’을 선호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p<.001$). 남·녀별로 보면 남·녀 모두 일상식으로서의 외식으로 ‘한식점(54.0%, 63.2%)’을 가장 선호하였다.

‘점심 일상식으로 선호하는 음식점’을 전체적으로 보면 ‘한식점(28.7%)’을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구내식당/매점(19.0%)’, ‘패스트푸드점(17.5%)’ 순이었다. ‘한식점’을 선호하는 비율은 40대(40.9%)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높았고 10대(11.6%)가 낮았으며, ‘패스트푸드점’을 선호하는 비율은 10대(34.2%)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높았다($p<.001$). 남·녀별로 보면 남·녀 모두 점심 일상식으로 ‘한식점(33.2%, 24.8%)’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한식점’과 ‘구내식당’을 선호하는 비율은 남자(33.2%, 21.2%)가 여자(24.8%, 17.1%)보다 높았으며 ‘패스트푸드점’을 선호하는 비율은 여자(18.4%)가 남자(16.4%)보다 높았다($p<.01$). 1996년에 주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문 등²⁸⁾의 연구에 의하면 끼니 해결을 위한 외식으로 ‘한식점’을 가장 선호하고, 그 다음으로 ‘중국음식점’, ‘양식점’ 순으로 선호하여서 본 조사의 여자와 같은 경향이였다.

‘저녁 일상식’으로 선호하는 음식점은 모든 연령대가 ‘한식점’을 가장 선호하였으며(26.5%~69.1%), ‘한식점’을 선호하는 비율은 40대(69.1%), 30대(68.7%)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으며 10대(26.5%)가 가장 낮았다. ‘양식점’과 ‘패스트푸드점’을 선호하는 비율은 10대(25.2%, 17.4%)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으며, ‘일식점’을 선호하는 비율은 50대 이상(22.5%)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p<.001$). 남·녀별로 보면 남·녀

<Table 5> Preferable restaurants by age and gender

n(%)

		10-19	20-29	30-39	40-49	≥50	Total	Males	Females
Preferable restaurants when dining out with family	Korean style restaurants	86(55.5)	99(68.3)	71(71.7)	82(74.5)	50(62.5)	388(65.9)	167(60.9)	221(70.2)
	Western style restaurants	35(22.6)	19(13.1)	10(10.1)	1(0.9)	9(11.3)	74(12.6)	40(14.6)	34(10.8)
	Japanese style restaurants	18(11.6)	8(5.5)	5(5.1)	8(7.3)	13(16.3)	52(8.8)	31(11.3)	21(6.7)
	Chinese style restaurants	11(7.1)	15(10.3)	3(3.0)	12(10.9)	7(8.8)	48(8.1)	24(8.8)	24(7.6)
	Fast food(Western style)	3(1.9)	2(1.4)	9(9.1)	3(2.7)	1(1.3)	18(3.1)	6(2.2)	12(3.8)
	Convenient food(Korean style)	2(1.3)	2(1.4)	1(1.0)	4(3.6)	0(0)	9(1.5)	6(2.2)	3(1.0)
$\chi^2=64.173^{***}$							$\chi^2=10.120$		
Preferable restaurants for social purpose	Korean style restaurants	14(9.0)	34(23.4)	52(52.5)	75(68.2)	36(45.0)	211(35.8)	109(39.8)	102(32.4)
	Western style restaurants	11(7.1)	22(15.2)	17(17.2)	8(7.3)	1(1.3)	59(10.0)	19(6.9)	40(12.7)
	Japanese style restaurants	7(4.5)	9(6.2)	15(15.2)	17(15.5)	34(42.5)	82(13.9)	41(15.0)	41(13.0)
	Chinese style restaurants	4(2.6)	5(3.4)	3(3.0)	2(1.8)	8(10.0)	22(3.7)	15(5.5)	7(2.2)
	Fast food(Western style)	72(46.5)	57(39.3)	7(7.1)	3(2.7)	1(1.3)	140(23.8)	58(21.2)	82(26.0)
	Convenient food(Korean style)	47(30.3)	18(12.4)	5(5.1)	5(4.5)	0(0)	75(12.7)	32(11.7)	43(13.7)
$\chi^2=325.361^{***}$							$\chi^2=13.555^{**}$		
Preferable restaurants for a meal (breakfast)	Korean style restaurants	73(47.1)	72(49.7)	70(70.7)	78(70.9)	54(67.5)	347(58.9)	148(54.0)	199(63.2)
	Western style restaurants	2(1.3)	1(0.7)	0(0)	1(0.9)	0(0)	4(0.7)	3(1.1)	1(0.3)
	Japanese style restaurants	1(0.6)	1(0.7)	0(0)	0(0)	1(1.3)	3(0.5)	1(0.4)	2(0.6)
	Chinese style restaurants	4(2.6)	4(2.8)	0(0)	0(0)	4(5.0)	12(2.0)	9(3.3)	3(1.0)
	Fast food(Western style)	18(11.6)	17(11.7)	10(10.1)	2(1.8)	1(1.3)	48(8.1)	27(9.9)	21(6.7)
	Convenient food(Korean style)	17(11.0)	6(4.1)	8(8.1)	8(7.3)	3(3.8)	42(7.1)	24(8.8)	18(5.7)
	Restaurants in school, company	40(25.8)	44(30.3)	11(11.1)	21(19.1)	17(21.3)	133(22.6)	62(22.6)	71(22.5)
$\chi^2=56.880^{***}$							$\chi^2=11.246$		
Preferable restaurants for a meal (lunch)	Korean style restaurants	18(11.6)	41(28.3)	34(34.3)	45(40.9)	31(38.8)	169(28.7)	91(33.2)	78(24.8)
	Western style restaurants	8(5.2)	3(2.1)	7(7.1)	5(4.5)	7(8.8)	30(5.1)	11(4.0)	19(6.0)
	Japanese style restaurants	7(4.5)	4(2.8)	5(5.1)	8(7.3)	5(6.3)	29(4.9)	15(5.5)	14(4.4)
	Chinese style restaurants	16(10.3)	16(11.0)	6(6.1)	16(14.5)	16(20.0)	70(11.9)	33(12.0)	37(11.7)
	Fast food(Western style)	53(34.2)	28(19.3)	13(13.1)	9(8.2)	0(0)	103(17.5)	45(16.4)	58(18.4)
	Convenient food(Korean style)	23(14.8)	20(13.8)	16(16.2)	14(12.7)	3(3.8)	76(12.9)	21(7.7)	55(17.5)
	Restaurants in school, company	30(19.4)	33(22.8)	18(18.2)	13(11.8)	18(22.5)	112(19.0)	58(21.2)	54(17.1)
$\chi^2=98.913^{***}$							$\chi^2=17.622^{**}$		
Preferable restaurants for a meal (dinner)	Korean style restaurants	41(26.5)	48(33.1)	68(68.7)	76(69.1)	46(57.5)	279(47.4)	136(49.6)	143(45.4)
	Western style restaurants	39(25.2)	23(15.9)	4(4.0)	6(5.5)	0(0)	72(12.2)	30(10.9)	42(13.3)
	Japanese style restaurants	18(11.6)	9(6.2)	10(10.1)	16(14.5)	18(22.5)	71(12.1)	38(13.9)	33(10.5)
	Chinese style restaurants	9(5.8)	10(6.9)	1(1.0)	7(6.4)	13(16.3)	40(6.8)	20(7.3)	20(6.3)
	Fast food(Western style)	27(17.4)	17(11.7)	10(10.1)	3(2.7)	0(0)	57(9.7)	23(8.4)	34(10.8)
	Convenient food(Korean style)	16(10.3)	19(13.1)	3(3.0)	2(1.8)	1(1.3)	41(7.0)	14(5.1)	27(8.6)
	Restaurants in school, company	5(3.2)	19(13.1)	3(3.0)	0(0)	2(2.5)	29(4.9)	13(4.7)	16(5.1)
$\chi^2=184.461^{***}$							$\chi^2=6.259$		

* p<.05 ** p<.01 *** p<.001

모두 저녁 일상식으로서 '한식점(49.6%, 45.4%)' 을 가장 선호하였고 그 다음은 '양식점', '일식점' 순이었다.

1996년 직장 남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박 등9)의 연구에 의하면 저녁 끼니 해결로 '한식점' 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그 다음은 '양식점' '일식점' 순이어서

본 조사의 남자와 같은 경향이었다.

'음식점을 방문하는 이유' 에 대해서 연령별·성별로 조사한 표는 <Table 6>과 같았다.

'한식점을 방문하는 이유' 에 대해서 연령대별로 보면 모든 연령대가 '이마에 앉아서' 한식점을 방문하는

<Table 6> Reason of invitation each restaurants by age and gender

n(%)

		10-19	20-29	30-39	40-49	≥50	Total	Males	Females
Korean style restaurants	Well matched with one's appetite	80(51.6)	96(66.2)	72(72.7)	83(75.5)	49(61.3)	380(64.5)	175(63.9)	205(65.1)
	Large quantity	6(3.9)	4(2.8)	3(3.0)	0(0)	3(3.8)	16(2.7)	10(3.6)	6(1.9)
	Superior in a nutritious aspect	47(30.3)	18(12.4)	11(11.1)	7(6.4)	24(30.0)	107(18.2)	45(16.4)	62(19.7)
	Proper price	8(5.2)	4(2.8)	1(1.0)	5(4.5)	2(2.5)	20(3.4)	11(4.0)	9(2.9)
	Proper place for social meeting	4(2.6)	10(6.9)	7(7.1)	5(4.5)	1(1.3)	27(4.6)	17(6.2)	10(3.2)
	For sanitary facilities	6(3.9)	11(7.6)	5(5.1)	8(7.3)	0(0)	30(5.1)	11(4.0)	19(6.0)
	Good appearance of food	2(1.3)	1(0.7)	0(0)	0(0)	0(0)	3(0.5)	2(0.7)	1(0.3)
	Kind service	2(1.3)	1(0.7)	0(0)	2(1.8)	1(1.3)	6(1.0)	3(1.1)	3(1.0)
$\chi^2=68.885^{***}$							$\chi^2=7.734$		
Western style restaurants	Well matched with one's appetite	58(37.4)	36(24.8)	14(14.1)	10(9.1)	6(7.5)	124(21.1)	52(19.0)	72(22.9)
	Large quantity	6(3.9)	0(0)	0(0)	0(0)	0(0)	6(1.0)	4(1.5)	2(0.6)
	Superior in a nutritious aspect	10(6.5)	2(1.4)	0(0)	3(2.7)	2(2.5)	17(2.9)	8(2.9)	9(2.9)
	Proper price	2(1.3)	5(3.4)	1(1.0)	2(1.8)	1(1.3)	11(1.9)	7(2.6)	4(1.3)
	Proper place for social meeting	31(20.0)	58(40.0)	39(39.4)	51(46.4)	56(70.0)	235(39.9)	91(33.2)	144(45.7)
	For sanitary facilities	26(16.8)	31(21.4)	40(40.4)	31(28.2)	15(18.8)	143(24.3)	86(31.4)	57(18.1)
	Good appearance of food	16(10.3)	9(6.2)	4(4.0)	5(4.5)	0(0)	34(5.8)	18(6.6)	16(5.1)
	Kind service	6(3.9)	4(2.8)	1(1.0)	8(7.3)	0(0)	19(3.2)	8(2.9)	11(3.5)
$\chi^2=139.956^{***}$							$\chi^2=20.440^{**}$		
Japanese style restaurants	Well matched with one's appetite	67(43.2)	51(35.2)	32(32.3)	39(35.5)	25(31.3)	214(36.3)	103(37.6)	111(35.2)
	Low calorie	31(20.0)	27(18.6)	29(29.3)	34(30.9)	26(32.5)	147(25.0)	59(21.5)	88(27.9)
	Good appearance of food	10(6.5)	13(9.0)	2(2.0)	3(2.7)	0(0)	28(4.8)	15(5.5)	13(4.1)
	Proper price	7(4.5)	1(0.7)	0(0)	0(0)	1(1.3)	9(1.5)	7(2.6)	2(0.6)
	For sanitary facilities	29(18.7)	35(24.1)	14(14.1)	19(17.3)	23(28.8)	120(20.4)	50(18.2)	70(22.2)
	Proper place for social meeting	7(4.5)	14(9.7)	13(13.1)	13(11.8)	5(6.3)	52(8.8)	28(10.2)	24(7.6)
	Kind service	4(2.6)	4(2.8)	9(9.1)	2(1.8)	0(0)	19(3.2)	12(4.4)	7(2.2)
$\chi^2=64.3819^{***}$							$\chi^2=11.097$		
Chinese style restaurants	Well matched with one's appetite	67(43.2)	59(40.7)	38(38.4)	40(36.4)	21(26.3)	225(38.2)	94(34.3)	131(41.6)
	Large quantity	23(14.8)	14(9.7)	3(3.0)	5(4.5)	2(2.5)	47(8.0)	26(9.5)	21(6.7)
	Superior in a nutritious aspect	5(3.2)	2(1.4)	1(1.0)	0(0)	0(0)	8(1.4)	5(1.8)	3(1.0)
	Proper price	46(29.7)	61(42.1)	52(52.5)	52(47.3)	51(63.8)	262(44.5)	125(45.6)	137(43.5)
	Proper place for social meeting	3(1.9)	2(1.4)	1(1.0)	4(3.6)	0(0)	10(1.7)	6(2.2)	4(1.3)
	For sanitary facilities	4(2.6)	3(2.1)	3(3.0)	7(6.4)	4(5.0)	21(3.6)	11(4.0)	10(3.2)
	Good appearance of food	3(1.9)	1(0.7)	1(1.0)	0(0)	0(0)	5(0.8)	3(1.1)	2(0.6)
	Kind service	4(2.6)	3(2.1)	0(0)	2(1.8)	2(2.5)	11(1.9)	4(1.5)	7(2.2)
$\chi^2=59.273^{**}$							$\chi^2=6.308$		

* p<.05 ** p<.01 *** p<.001

비율(51.6%~75.5%)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30대(72.7%)와 40대(75.5%)가 '입맛에 맞아서' 한식점을 방문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더 높았다. '영양적으로 우수해서' 한식점을 방문하는 비율은 10대(30.3%)와 50대 이상(30.0%)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p<.001). 남·녀별로 보면 남·녀 모두 한식점이 '입맛에 맞아서' 방문한다는 비율(63.9%, 65.1%)이 가장 높았다. 1996년 20대 이상 주부들을 대상으로 조사

한 장 등³⁰⁾의 연구에 의하면 외식시 한국음식점을 방문하는 이유에 대해서 '맛이 좋아서' 방문한다는 비율이 48.6%로 본 조사와 같았다.

'양식점을 방문하는 이유'에 대해 연령대별로 보면 양식점이 '입맛에 맞아서' 방문하는 비율은 10대(37.4%)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으며, '사교장소로서 적당하기 때문에' 양식점을 방문하는 비율은 50대 이상(70.0%)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p<.001).

<Table 6> Continued

n(%)

		10-19	20-29	30-39	40-49	≥50	Total	Males	Females
Fast food (Western style)	Well matched with one's appetite	61(39.4)	36(24.8)	15(15.2)	19(17.3)	7(8.8)	138(23.4)	64(23.4)	74(23.5)
	Large quantity	2(1.3)	0(0)	2(2.0)	0(0)	0(0)	4(0.7)	4(1.5)	0(0)
	Superior in a nutritious aspect	4(2.6)	2(1.4)	0(0)	3(2.7)	0(0)	9(1.5)	5(1.8)	4(1.3)
	Proper price	15(9.7)	18(12.4)	11(11.1)	7(6.4)	9(11.3)	60(10.2)	32(11.7)	28(8.9)
	Proper place for social meeting	7(4.5)	14(9.7)	3(3.0)	4(3.6)	2(2.5)	30(5.1)	16(5.8)	14(4.4)
	For sanitary facilities	4(2.6)	3(2.1)	5(5.1)	3(2.7)	0(0)	15(2.5)	7(2.6)	8(2.5)
	Convenient for eating	60(38.7)	71(49.0)	62(62.6)	74(67.3)	62(77.5)	329(55.9)	143(52.2)	186(59.0)
	Good appearance of food	0(0)	1(0.7)	0(0)	0(0)	0(0)	1(0.2)	1(0.4)	0(0)
Kind service	2(1.3)	0(0)	1(1.0)	0(0)	0(0)	3(0.5)	2(0.7)	1(0.3)	
$\chi^2=81.671***$							$\chi^2=9.448$		
Convenient food (Korean style)	Well matched with one's appetite	34(21.9)	25(17.2)	21(21.2)	16(14.5)	6(7.5)	102(17.3)	37(13.5)	65(20.6)
	Large quantity	19(12.3)	10(6.9)	2(2.0)	0(0)	6(7.5)	37(6.3)	22(8.0)	15(4.8)
	Convenient for eating	36(23.2)	43(29.7)	55(55.6)	68(61.8)	53(66.3)	255(43.3)	128(46.7)	127(40.3)
	Proper place to meet friends	55(35.5)	34(23.4)	8(8.1)	4(3.6)	0(0)	101(17.1)	41(15.0)	60(19.0)
	Proper price	11(7.1)	33(22.8)	13(13.1)	22(20.0)	15(18.8)	94(16.0)	46(16.8)	48(15.2)
$\chi^2=146.884***$							$\chi^2=9.825*$		

* p<.05 ** p<.01 *** p<.001

남·녀별로 보면 남·녀 모두 '사교장소로 적당하기 때문에' 양식점을 방문하는 비율(33.2%, 45.7%)이 가장 높았는데 그 비율은 여자(45.7%)가 남자(33.2%)보다 더 높았고, '장소가 쾌적하고 음식이 위생적이어서'는 남자(31.4%)가 여자(18.1%)보다 높았고, '입맛에 맞아서'는 여자(22.9%)가 남자(19.0%)보다 높았다(p<.01).

'일식점을 방문하는 이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입맛에 맞아서(36.3%)', '열량이 낮아서(25.0%)', '장소가 쾌적하고 음식이 위생적이라서(20.4%)'의 순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입맛에 맞아서' 일식점을 방문하는 비율은 10대(43.2%)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으며 '열량이 낮아서' 일식점을 방문하는 비율은 30대 이상(29.3%~32.5%)에서 높았으며, '장소가 쾌적하고 음식이 위생적이라서' 일식점을 방문하는 비율은 50대 이상(28.8%)과 20대(24.1%)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p<.001). 남·녀별로 보면 남·녀 모두 '입맛에 맞아서(37.6%, 35.2%)'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열량이 낮아서(21.5%, 27.9%)'였다.

'중국음식점'을 방문하는 이유에 대해서 연령대별로 보면 '가격이 적당해서' 중국음식점을 방문하는 비율은 10대(29.7%)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대(42.1%~63.8%)에서 높았는데, 특히 50대 이상(63.8%)이 가장 높았다. '입맛에 맞아서' 중국음식점을 방문한다는 비율은 10대(43.2%)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았다

(p<.01). 남·녀별로 보면 남·녀 모두 '가격이 적당하기 때문에' 중국 음식점을 방문하는 비율(45.6%, 43.5%)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입맛에 맞아서(34.3%, 41.6%)'였다.

'간이 음식점(분식점)'을 방문하는 이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모두 '먹기 간편해서(43.3%)' 방문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30대 이상(55.6%~66.3%)이 20대 이하(23.2%~29.7%)보다 더 높았다. '입맛에 맞아서'는 10대(21.9%)가 가장 높고, 50대 이상(7.5%)이 가장 낮았다. '친구와 어울리기 적당해서' 방문한다는 비율은 10대(35.5%)와 20대(23.4%)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p<.001). 남·녀별로 보면 '먹기 간편하기 때문에' 방문한다는 비율은 남자(46.7%)가 여자(40.3%)보다 높았고, '입맛에 맞아서' 방문하는 비율은 여자(20.6%)가 남자(13.5%)보다 높았다(p<.05).

'패스트푸드점을 방문하는 이유'에 대해 연령대별로 보면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가 '먹기 간편하기 때문에' 방문한다고 답한 비율(49.0%)이 가장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 비율이 증가했다. '입맛에 맞기 때문에'는 10대와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p<.001). 남·녀별로 보면 남·녀 모두 '먹기 간편해서' 방문하는 비율(52.2%, 59.0%)이 가장 높았다.

연령별·성별에 따라 각 음식점에서 선호하는 음식을 조사한 표는 <Table 7과 같았다.

'한식점에서 선호하는 음식'을 전체적으로 보면 '갈

<Table 7> Preferable food, when visiting each restaurants by age and gender

							n(%)		
		10-19	20-29	30-39	40-49	≥50	Total	Males	Females
Korean style restaurants	Korean regular meal	13(8.4)	13(9.0)	16(16.2)	14(12.7)	25(31.3)	81(13.8)	33(12.0)	48(15.2)
	Soybean paste stew	8(5.2)	15(10.3)	15(15.2)	12(10.9)	11(13.8)	61(10.4)	34(12.4)	27(8.6)
	Kimchi stew	5(3.2)	20(13.8)	9(9.1)	9(8.2)	13(16.3)	56(9.5)	22(8.0)	34(10.8)
	Soybean curd stew	8(5.2)	28(19.3)	4(4.0)	9(8.2)	4(5.0)	53(9.0)	24(8.8)	29(9.2)
	Bibimbap(boiled rice with assorted mixtures)	22(14.2)	15(10.3)	7(7.1)	6(5.5)	0(0)	50(8.5)	23(8.4)	27(8.6)
	Soup	12(7.7)	13(9.0)	14(14.1)	22(20.0)	10(12.5)	71(12.1)	52(19.0)	19(6.0)
	Ribs of beef	45(29.0)	18(12.4)	22(22.2)	26(23.6)	16(20.0)	127(21.6)	50(18.2)	77(24.4)
	Roast meat	10(6.5)	6(4.1)	7(7.1)	5(4.5)	1(1.3)	29(4.9)	16(5.8)	13(4.1)
	Naengmyeon (Buckwheat vermicelli)	27(17.4)	13(9.0)	1(1.0)	6(5.5)	0(0)	47(8.0)	11(4.0)	36(11.4)
	Spicy beef soup	3(1.9)	3(2.1)	3(3.0)	0(0)	0(0)	9(1.5)	5(1.8)	4(1.3)
	Small intestines of cattle jeongol	2(1.3)	0(0)	1(1.0)	1(0.9)	0(0)	4(0.7)	3(1.1)	1(0.3)
	Rice cake soup	0(0)	1(0.7)	0(0)	0(0)	0(0)	1(0.2)	1(0.4)	0(0)
		$\chi^2=68.885***$					$\chi^2=7.734$		
Western style restaurants	Steak	62(40.0)	37(25.5)	33(33.3)	45(40.9)	48(60.0)	225(38.2)	106(38.7)	119(37.8)
	Cutlet(beef,pork,fish)	60(38.7)	45(31.0)	39(39.4)	37(33.6)	27(33.8)	208(35.3)	105(38.3)	103(32.7)
	Rice	13(8.4)	17(11.7)	13(13.1)	9(8.2)	3(3.8)	55(9.3)	35(12.8)	20(6.3)
	Salad	5(3.2)	4(2.8)	0(0)	5(4.5)	1(1.3)	15(2.5)	7(2.6)	8(2.5)
	Fajita	0(0)	5(3.4)	0(0)	0(0)	0(0)	5(0.8)	2(0.7)	3(1.0)
	Pasta	11(7.1)	35(24.1)	13(13.1)	10(9.1)	1(1.3)	70(11.9)	13(4.7)	57(18.1)
	Cake/Bread	2(1.3)	2(1.4)	0(0)	3(2.7)	0(0)	7(1.2)	4(1.5)	3(1.0)
Soup	2(1.3)	0(0)	1(1.0)	1(0.9)	0(0)	4(0.7)	2(0.7)	2(0.6)	
		$\chi^2=139.956***$					$\chi^2=20.440**$		
Japanese style restaurants	Slices of raw fish	62(40.0)	50(34.5)	46(46.5)	65(59.1)	51(63.8)	274(46.5)	143(52.2)	131(41.6)
	Vinegared rice and fish	36(23.2)	46(31.7)	29(29.3)	20(18.2)	11(13.8)	142(24.1)	66(24.1)	76(24.1)
	Denpura	13(8.4)	6(4.1)	4(4.0)	7(6.4)	0(0)	30(5.1)	15(5.5)	15(4.8)
	Udong (wheat noodles)	36(23.2)	25(17.2)	5(5.1)	0(0)	9(11.3)	75(12.7)	27(9.9)	48(15.2)
	Laver vinegar rice	2(1.3)	2(1.4)	2(2.0)	3(2.7)	0(0)	9(1.5)	2(0.7)	7(2.2)
	Deriyakki	1(0.6)	1(0.7)	1(1.0)	0(0)	0(0)	3(0.5)	2(0.7)	1(0.3)
	Skiyakki	0(0)	2(1.4)	2(2.0)	0(0)	1(1.3)	5(0.8)	2(0.7)	3(1.0)
	Buckwheat noodles	2(1.3)	5(3.4)	7(7.1)	8(7.3)	0(0)	22(3.7)	5(1.8)	17(5.4)
	Pepper pot soup	3(1.9)	8(5.5)	3(3.0)	7(6.4)	8(10.0)	29(4.9)	12(4.4)	17(5.4)
		$\chi^2=59.273**$					$\chi^2=6.308$		

* p<.05 ** p<.01 *** p<.001

비구이(21.6%)’를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한정식(13.8%)’, ‘탕류음식(12.1%)’, ‘된장찌개백반(10.4%)’ 순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갈비구이’를 선호하는 비율은 10대(29.0%)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으며 ‘한정식’을 선호하는 비율은 50대 이상(31.3%)이 가장 높았고 ‘탕류음식’은 40대(20.0%)가 가장 높았다(p<.001). 남·녀별로 보면 ‘탕류음식’은 남자(19.0%)가 여자(6.0%)보다 더 선호하였으며 ‘냉면’

과 ‘갈비구이’는 여자(11.4%, 24.4%)가 남자(4.0%, 18.2%)보다 더 선호하였다(p<.001).

‘양식점에서 선호하는 음식’을 전체적으로 보면 ‘스테이크류’를 선호하는 비율(38.2%)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커피(35.3%)’, ‘파스타류(11.9%)’ 순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스테이크류’를 선호하는 비율은 50대 이상(60.0%)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으며, ‘파스타류’를 선호하는 비율은 20대

<Table 7> Continued

n(%)

		10-19	20-29	30-39	40-49	≥ 50	Total	Males	Females
Chinese style restaurants	Noodle	87(56.1)	95(65.5)	64(64.6)	74(67.3)	58(72.5)	378(64.2)	181(66.1)	197(62.1)
	Dumplings	11(7.1)	5(3.4)	3(3.0)	5(4.5)	0(0)	24(4.1)	16(5.8)	8(2.5)
	Tangsooyook	44(28.4)	32(22.1)	23(23.2)	10(9.1)	2(2.5)	111(18.8)	39(14.2)	72(22.9)
	Yangiangpi	1(0.6)	4(2.8)	2(2.0)	9(8.2)	3(3.8)	19(3.2)	12(4.4)	7(2.2)
	Kkanpoonggi	4(2.6)	1(0.7)	3(3.0)	3(2.7)	9(11.3)	20(3.4)	10(3.6)	10(3.2)
	Yusansie	1(0.6)	1(0.7)	2(2.0)	0(0)	0(0)	4(0.7)	1(0.4)	3(1.0)
	Rajogi	0(0)	0(0)	0(0)	1(0.9)	0(0)	1(0.2)	0(0)	1(0.3)
	Palbochae	3(1.9)	3(2.1)	0(0)	4(3.6)	0(0)	10(1.7)	6(2.2)	4(1.3)
	Shrimpketchup roast	1(0.6)	1(0.7)	0(0)	0(0)	0(0)	2(0.3)	1(0.4)	1(0.3)
Nanjayance	2(1.3)	2(1.4)	0(0)	1(0.9)	0(0)	5(0.8)	2(0.7)	3(1.0)	
Naengchae	1(0.6)	1(0.7)	2(2.0)	3(2.7)	8(10.0)	15(2.5)	6(2.2)	9(2.9)	
$\chi^2=106.306^{***}$							$\chi^2=14.889$		
Convenient food (Korean style)	Dduckbokki	90(58.1)	68(46.9)	17(17.2)	16(14.5)	1(1.3)	192(32.6)	76(27.7)	116(36.8)
	Fried food	23(14.8)	13(9.0)	8(8.1)	7(6.4)	4(5.0)	55(9.3)	42(15.3)	13(4.1)
	Jjolmyeon	13(8.4)	15(10.3)	13(13.1)	4(3.6)	0(0)	45(7.6)	17(6.2)	28(8.9)
	Bibimnaengmyeon	6(3.9)	11(7.6)	11(11.1)	21(19.1)	14(17.5)	63(10.7)	27(9.9)	36(11.4)
	Kalgooksoo	2(1.3)	5(3.4)	16(16.2)	32(29.1)	15(18.8)	70(11.9)	50(18.2)	20(6.3)
	Sujaebi	3(1.9)	1(0.7)	0(0)	6(5.5)	6(7.5)	16(2.7)	5(1.8)	11(3.5)
	Kimbap	10(6.5)	27(18.6)	27(27.3)	19(17.3)	11(13.8)	94(16.0)	43(15.7)	51(16.2)
	Denpra	0(0)	2(1.4)	0(0)	0(0)	9(11.3)	11(1.9)	4(1.5)	7(2.2)
Soondae	8(5.2)	3(2.1)	7(7.1)	5(4.5)	20(25.0)	43(7.3)	10(3.6)	33(10.5)	
$\chi^2=297.487^{***}$							$\chi^2=53.915^{***}$		
Fast food (Western style)	Hamburger	97(62.6)	79(54.5)	43(43.4)	32(29.1)	11(13.8)	262(44.5)	135(49.3)	127(40.3)
	Chicken	29(18.7)	37(25.5)	33(33.3)	38(34.5)	61(76.3)	198(33.6)	86(31.4)	112(35.6)
	Pizza	19(12.3)	21(14.5)	15(15.2)	20(18.2)	6(7.5)	81(13.8)	32(11.7)	49(15.6)
	Fried potato	3(1.9)	2(1.4)	6(6.1)	6(5.5)	2(2.5)	19(3.2)	8(2.9)	11(3.5)
	Pie	4(2.6)	1(0.7)	0(0)	3(2.7)	0(0)	8(1.4)	3(1.1)	5(1.6)
	Salad	3(1.9)	5(3.4)	2(2.0)	11(10.0)	0(0)	21(3.6)	10(3.6)	11(3.5)
$\chi^2=128.401^{***}$							$\chi^2=5.420$		

* p<.05 ** p<.01 *** p<.001

(24.1%)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p<.001). '양식점에서 좋아하는 음식'을 남·녀별로 보면 '스테이크류'와 '포크(생선)가스', '라이스류'는 남자(38.7%, 38.3%, 12.8%)가 여자(37.8%, 32.7%, 6.3%)보다 더 선호하였으며 '파스타류'는 여자(18.1%)가 남자(4.7%)보다 더 선호하였다(p<.001).

'일식집에서 선호하는 음식'을 전체적으로 보면 '회'를 선호하는 비율이 46.5%, '생선초밥'이 24.1%, '우동'이 12.7%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회'를 선호하는 비율은 40대(59.1%)와 50대 이상(63.8%)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 높았으며 '생선초밥'을 선호하는 비율은 20대(31.7%)와 30대(29.3%)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고 '우동'을 선호하는 비율은 10대(23.2%)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p<.001). 남·녀별로 보면 남·녀 모두 '회'를 선호하는 비율(52.2%, 41.6%)이 가장 높았다. '중국음식점'에서 선호하는 음식은 모든 연령에서 '면류음식'을 가장 선호하였고(64.2%), 그 다음은 '탕수육(18.8%)'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면류음식'을 선호하는 비율은 50대 이상(72.5%)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으며, '탕수육'을 선호하는 비율은 30대 이하(22.1%~28.4%)가 40대 이상(2.5%~9.1%)보다 높았으며, 특히 10대가 가장 좋아했다(p<.001). 남·녀별로 보면 남·녀 모두 '면류음식'을 선호하는 비율(66.1%, 62.1%)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탕수육(14.2%, 22.9%)'이었다.

'간이 음식점(분식점)'에서 선호하는 음식을 연령대

별로 보면 '떡볶기'를 선호하는 비율은 10대(58.1%)와 20대(46.9%)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으며 '김밥'을 선호하는 비율은 30대(27.3%)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고 '칼국수'를 선호하는 비율은 40대(29.1%), 50대 이상(18.8%)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p<.001$). 남·녀별로 보면 남·녀 모두 간이 음식점(분식점)에서는 떡볶기를 좋아하는 비율(27.7%, 36.8%)이 가장 높았다. 튀김류 음식과 칼국수는 남자(15.3%, 18.2%)가 여자(4.1%, 6.3%)보다 더 선호하였으며, 떡볶기와 순대는 여자(36.8%, 10.5%)가 남자(27.7%, 3.6%)보다 더 선호하였다($p<.001$). 1996년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조 등³⁾의 연구에 의하면 남녀 중학생 모두 떡볶기를 가장 선호하여서 본 조사의 10대가 떡볶기를 가장 선호하는 것과 같았으며, 1996년 직장 남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박 등⁶⁾의 연구에 의하면 '칼국수(55.4%)'를 가장 선호하여서 본 조사의 40대가 칼국수를 가장 선호하는 것과 같았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선호하는 음식을 전체적으로 보면 '햄버거(44.5%)'를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치킨류(33.6%)'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햄버거'는 연령대가 적을수록 더 선호하였으며(10대 62.6%, 50대 13.8%), 특히 10대(62.6%)와 20대(54.5%)가 햄버거를 선호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그리고 '치킨류'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50대 이상이 76.3%, 10대가 18.7%였다($p<.001$). 남·녀별로 보면 남·녀 모두 햄버거(49.3%, 40.3%)를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치킨류(31.4%, 35.6%)'와 '피자(11.7%, 15.6%)'였다.

'음식의 종류에 따라 원하는 외식횟수'를 연령별·성별로 조사한 표는 <Table 8>과 같았다.

한식의 '원하는 외식횟수'를 전체적으로 보면 한식을 '하루에 한끼' 정도 먹기 원하는 비율이 28.7%, '한 달에 한끼'가 22.9%, '일주일에 한끼'가 20.2%, '15일에 한끼'가 18.3%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하루에 한끼' 정도 먹기 원하는 비율은 50대 이상(51.3%)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으며 '한 달에 한끼' 정도 먹기 원하는 비율은 10대(37.4%)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p<.001$). 남·녀별로 보면 한식을 '하루에 한끼' 정도 먹기 원하는 비율은 남자(36.1%)가 여자(22.2%)보다 더 높았고 '15일에 한끼' 정도 먹기 원하는 비율은 여자(22.2%)가 남자(13.9%)보다 더 높았다. 대체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외식으로 한식을 더 자주 먹기 원하였다($p<.01$).

양식의 '원하는 외식횟수'를 전체적으로 보면 '한 달에 한끼(41.4%)' 정도 먹기 원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

으며 그 다음은 '15일에 한끼(22.9%)', '일주일에 한끼(20.7%)' 순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한 달에 한끼' 정도 먹기 원하는 비율은 40대(66.4%)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 높았고 '15일에 한끼 정도' 먹기 원하는 비율은 50대 이상 연령(36.3%)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일주일에 한끼' 정도 먹기 원하는 비율은 20대(29.7%)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 높았다($p<.001$). 남·녀별로 보면 남·녀 모두 외식시 양식을 '한 달에 한끼(43.1%, 40.0%)' 정도 먹기를 원하였다.

일식의 '원하는 외식횟수'를 전체적으로 보면 '한 달에 한끼(47.0%)' 정도 먹기 원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15일에 한끼(21.9%)', '일주일에 한끼(16.8%)' 순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한 달에 한끼' 정도 먹기 원하는 비율은 10대(56.1%)와 40대(54.5%)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으며 '일주일에 한끼' 정도 먹기 원하는 비율은 50대 이상(28.8%)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 높았다($p<.01$). 남·녀별로 보면 남·녀 모두 일식을 '한 달에 한끼' 정도 먹기 원하는 비율(39.8%, 53.3%)이 가장 높았으며, 여자(53.3%)가 남자(39.8%)보다 일식을 '한 달에 한끼' 정도 먹기 원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끼' 정도나 그 보다 더 자주 먹기를 원하는 비율은 남자(18.2%)가 여자(15.6%)보다 더 높았다. 대체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일식을 더 자주 먹기를 원하였다($p<.001$).

중국음식의 '원하는 외식횟수'를 전체적으로 보면 '15일에 한끼' 정도 먹기 원하는 비율이 30.7%, '한 달에 한끼'가 28.0%, '일주일에 한끼'가 26.1%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한 달에 한끼' 정도 먹기 원하는 비율은 40대(40.0%)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으며 '15일에 한끼' 정도 먹기 원하는 비율과 '일주일에 한끼' 정도 먹기 원하는 비율은 50대 이상(37.5%, 32.5%)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 높았다($p<.001$). 남·녀별로 보면 '한 달에 한끼'나 '15일에 한끼' 정도 먹기 원하는 비율은 여자(32.1%, 33.3%)가 남자(23.4%, 27.7%)보다 더 높았으며, '일주일에 한끼'나 그 보다 더 자주 먹기 원하는 비율은 남자(28.1%)가 여자(24.4%)보다 더 높았다. 대체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외식시 중국음식을 더 자주 먹기를 원하였다($p<.01$).

패스트푸드를 '원하는 외식횟수'를 전체적으로 보면 '한 달에 한끼' 정도 먹기 원하는 비율이 35.1%, '일주일에 한끼'가 23.6%, '15일에 한끼'가 22.9%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4-5일에 한끼'나 '일주일에 한끼' 정도 먹기 원하는 비율은 20대 이하(13.5%~14.5%, 22.6%~36.6%)가 30대 이상(0%~3.0%, 10.0%~23.2%)보다 높았으며, '한 달에 한끼' 정도 먹기 원하는 비율은 30대 이상(36.4%~61.3%)이 20대 이하(17.2%~

<Table 8> Number to want to eat out

n(%)

		10-19	20-29	30-39	40-49	≥50	Total	Males	Females
Korean style food	1 time per a month	58(37.4)	29(20.0)	18(18.2)	27(24.5)	3(3.8)	135(22.9)	62(22.6)	73(23.2)
	1 time per half a month	36(23.2)	21(14.5)	13(13.1)	23(20.9)	15(18.8)	108(18.3)	38(13.9)	70(22.2)
	1 time per a week	23(14.8)	31(21.4)	24(24.2)	28(25.5)	13(16.3)	119(20.2)	51(18.6)	68(21.6)
	1 time per 4-5 days	8(5.2)	3(2.1)	3(3.0)	0(0)	5(6.3)	19(3.2)	8(2.9)	11(3.5)
	1 time per 2-3 days	9(5.8)	15(10.3)	4(4.0)	8(7.3)	3(3.8)	39(6.6)	16(5.8)	23(7.3)
	1 time per a day	21(13.5)	46(31.7)	37(37.4)	24(21.8)	41(51.3)	169(28.7)	99(36.1)	70(22.2)
$\chi^2=83.906^{***}$							$\chi^2=16.740^{**}$		
Western style food	1 time per a month	67(43.2)	41(28.3)	39(39.4)	73(66.4)	24(30.0)	244(41.4)	118(43.1)	126(40.0)
	1 time per half a month	42(27.1)	29(20.0)	20(20.2)	15(13.6)	29(36.3)	135(22.9)	51(18.6)	84(26.7)
	1 time per a week	19(12.3)	43(29.7)	23(23.2)	18(16.4)	19(23.8)	122(20.7)	57(20.8)	65(20.6)
	1 time per 4-5 days	17(11.0)	16(11.0)	4(4.0)	3(2.7)	2(2.5)	42(7.1)	20(7.3)	22(7.0)
	1 time per 2-3 days	4(2.6)	13(9.0)	9(9.1)	1(0.9)	6(7.5)	33(5.6)	18(6.6)	15(4.8)
	1 time per a day	6(3.9)	3(2.1)	4(4.0)	0(0)	0(0)	13(2.2)	10(3.6)	3(1.0)
$\chi^2=83.417^{***}$							$\chi^2=10.186$		
Japanese style food	1 time per a month	87(56.1)	69(47.6)	40(40.4)	60(54.5)	21(26.3)	277(47.0)	109(39.8)	168(53.3)
	1 time per half a month	31(20.0)	35(24.1)	20(20.2)	23(20.9)	20(25.0)	129(21.9)	58(21.2)	71(22.5)
	1 time per a week	16(10.3)	26(17.9)	19(19.2)	15(13.6)	23(28.8)	99(16.8)	50(18.2)	49(15.6)
	1 time per 4-5 days	7(4.5)	7(4.8)	10(10.1)	7(6.4)	6(7.5)	37(6.3)	26(9.5)	11(3.5)
	1 time per 2-3 days	6(3.9)	7(4.8)	7(7.1)	5(4.5)	7(8.8)	32(5.4)	20(7.3)	12(3.8)
	1 time per a day	8(5.2)	1(0.7)	3(3.0)	0(0)	3(3.8)	15(2.5)	11(4.0)	4(1.3)
$\chi^2=41.495^{**}$							$\chi^2=22.490^{***}$		
Chinese style food	1 time per a month	51(32.9)	36(24.8)	28(28.3)	44(40.0)	6(7.5)	165(28.0)	64(23.4)	101(32.1)
	1 time per half a month	45(29.0)	48(33.1)	24(24.2)	34(30.9)	30(37.5)	181(30.7)	76(27.7)	105(33.3)
	1 time per a week	35(22.6)	39(26.9)	27(27.3)	27(24.5)	26(32.5)	154(26.1)	77(28.1)	77(24.4)
	1 time per 4-5 days	11(7.1)	16(11.0)	7(7.1)	4(3.6)	6(7.5)	44(7.5)	24(8.8)	20(6.3)
	1 time per 2-3 days	7(4.5)	5(3.4)	9(9.1)	1(0.9)	5(6.3)	27(4.6)	18(6.6)	9(2.9)
	1 time per a day	6(3.9)	1(0.7)	4(4.0)	0(0)	7(8.8)	18(3.1)	15(5.5)	3(1.0)
$\chi^2=53.005^{***}$							$\chi^2=21.557^{**}$		
Fast food (Western style)	1 time per a month	30(19.4)	25(17.2)	36(36.4)	67(60.9)	49(61.3)	207(35.1)	110(40.1)	97(30.8)
	1 time per half a month	44(28.4)	24(16.6)	25(25.3)	21(19.1)	21(26.3)	135(22.9)	63(23.0)	72(22.9)
	1 time per a week	35(22.6)	53(36.6)	23(23.2)	20(18.2)	8(10.0)	139(23.6)	50(18.2)	89(28.3)
	1 time per 4-5 days	21(13.5)	21(14.5)	3(3.0)	1(0.9)	0(0)	46(7.8)	19(6.9)	27(8.6)
	1 time per 2-3 days	12(7.7)	16(11.0)	9(9.1)	1(0.9)	2(2.5)	40(6.8)	18(6.6)	22(7.0)
	1 time per a day	13(8.4)	6(4.1)	3(3.0)	0(0)	0(0)	22(3.7)	14(5.1)	8(2.5)
$\chi^2=144.004^{***}$							$\chi^2=12.996^{**}$		
Convenient food (Korean style)	1 time per a month	25(16.1)	21(14.5)	28(28.3)	36(32.7)	32(40.0)	142(24.1)	86(31.4)	56(17.8)
	1 time per half a month	27(17.4)	26(17.9)	19(19.2)	28(25.5)	17(21.3)	117(19.9)	48(17.5)	69(21.9)
	1 time per a week	34(21.9)	38(26.2)	34(34.3)	34(30.9)	18(22.5)	158(26.8)	61(22.3)	97(30.8)
	1 time per 4-5 days	26(16.8)	25(17.2)	5(5.1)	8(7.3)	5(6.3)	69(11.7)	29(10.6)	40(12.7)
	1 time per 2-3 days	30(19.4)	28(19.3)	10(10.1)	3(2.7)	3(3.8)	74(12.6)	37(13.5)	37(11.7)
	1 time per a day	13(8.4)	7(4.8)	3(3.0)	1(0.9)	5(6.3)	29(4.9)	13(4.7)	16(5.1)
$\chi^2=77.489^{***}$							$\chi^2=17.605^{**}$		

* p<.05 ** p<.01 *** p<.001

19.4%)보다 높았는데, 특히 50대 이상이 '한 달에 한끼' 정도 먹기 원하는 비율(61.3%)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p<.001). 남·녀별로 보면 '한 달에 한끼' 정도 먹기 원하는 비율은 남자(40.1%)가 여자(30.8%)보다 높았으며, '일주일에 한끼' 정도 먹기 원하는 비율은 여자(28.3%)가 남자(18.2%)보다 높았다. 대체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패스트푸드음식을 더 자주 먹기를 원했다(p<.01).

간이음식을 '원하는 외식횟수'를 전체적으로 보면 '일주일에 한끼' 정도 먹기 원하는 비율이 26.8%, '한 달에 한끼'가 24.1%, '15일에 한끼'가 19.9%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한 달에 한끼' 정도 먹기 원하는 비율은 30대 이상(28.3%~40.0%)이 20대 이하(14.5%~16.1%)보다 높았으며, 특히 50대 이상(40.0%)이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가장 높았다. '일주일에 한끼' 정도 먹기 원하는 비율은 30대(34.3%)와 40대(30.9%)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높았으며 '4-5일에 한번'이나 '2-3일에 한 번' 외식하기 원하는 비율은 20대 이하(16.8%~17.2%, 19.3%~19.4%)가 30대 이상(5.1%~7.3%, 2.7%~10.1%)보다 높아서 연령이 적어질수록 간이음식을 더 자주 먹기 원하였다(p<.001). 남·녀별로 보면 '한 달에 한끼' 정도 먹기 원하는 비율은 남자(31.4%)가 여자(17.8%)보다 높았으며 '15일에 한끼'나 '일주일에 한끼' 먹기 원하는 비율은 여자(21.9%, 30.8%)가 남자(17.5%, 22.3%)보다 높아서, 여자가 남자보다 간이음식을 더 자주 먹기를 원하고 있었다(p<.01).

3) 음식점에 대한 요구도

'음식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을 연령별로 조사한 표는 <Table 9>와 같이 '음식의 맛'은 모든 연령대가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30대 이상이 10대보다 '음식의 맛'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다(p<.01).

'음식·식기의 위생성'은 모든 연령대가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4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음식·식기의 위생성'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다(p<.05). '재료의 신선도'는 모든 연령대가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4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재료의 신선도'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다(p<.001). '청결한 화장실'은 모든 연령대가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30대~4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청결한 화장실'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다(p<.001). '다양한 가격 구성'은 모든 연령대가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40대 이하가 50대 이상보다 '다양한 가격구성'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다(p<.001). '메뉴의 다양성'은 모든 연령대가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40대 이하가 50대 이상보다 '메뉴의 다양성'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다(p<.001). '친절한 서비스'는 모든 연령대가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40대 이하가 50대 이상보다 '친절한 서비스'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다(p<.01).

'음식점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모든 연령대가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40대 이하가 50대 이상보다

<Table 10> Important factors, when choosing restaurants by gender

	Males	Females	T-value
Taste of food	4.49±0.86	4.61±0.80	-1.757
Sanitary of food	4.47±0.80	4.56±0.81	-1.320
Freshness of material	4.42±0.82	4.49±0.82	-0.971
Cleanness of toilet	3.96±0.99	4.12±0.87	-2.056*
Various price	3.89±0.99	3.78±1.01	1.323
Various menu	3.68±1.14	3.62±1.12	0.646
Kind service	4.26±0.89	4.33±0.82	-0.964
Atmosphere of restaurants	4.13±0.93	4.27±0.88	-1.863

* p<.05 ** p<.01 *** p<.001

<Table 9> Important factors, when choosing restaurants by age

	10-19	20-29	30-39	40-49	≥50	F-value
Taste of food	4.36±0.93 ^a	4.54±0.96 ^{ab}	4.65±0.81 ^b	4.65±0.64 ^b	4.72±0.50 ^b	3.662**
Sanitary of food	4.47±0.82 ^a	4.43±0.92 ^a	4.54±0.81 ^{ab}	4.73±0.65 ^b	4.46±0.71 ^a	2.568*
Freshness of material	4.35±0.87 ^a	4.34±0.91 ^a	4.53±0.85 ^a	4.76±0.54 ^b	4.38±0.70 ^a	5.811***
Cleanness of toilet	3.86±0.99 ^a	3.92±1.01 ^a	4.26±0.94 ^b	4.31±0.79 ^b	3.98±0.67 ^a	5.948***
Various price	4.04±0.95 ^b	3.76±1.06 ^b	3.87±1.14 ^b	3.88±0.94 ^b	3.43±0.76 ^a	5.425***
Various menu	3.90±1.12 ^b	3.61±1.17 ^b	3.67±1.22 ^b	3.66±1.07 ^b	3.20±0.89 ^a	5.218***
Kind service	4.32±0.84 ^b	4.30±0.97 ^b	4.34±0.88 ^b	4.47±0.69 ^b	3.94±0.70 ^a	4.958**
Atmosphere of restaurants	4.15±0.97 ^b	4.27±1.03 ^b	4.23±0.92 ^b	4.37±0.69 ^b	3.90±0.69 ^a	3.605**

* p<.05 ** p<.01 *** p<.001

‘음식점의 분위기’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다($p<.01$).

음식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을 성별로 조사한 내용은 <Table 10>과 같이 남녀 모두 음식의 맛, 음식·식기의 위생성, 재료의 신선도, 친절한 서비스, 음식점의 분위기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청결한 화장실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다($p<.05$).

‘한식점에 대한 요구사항’을 연령별로 조사한 내용은 <Table 11>과 같았고, 성별로 조사한 내용은 <Table 12>와 같았다.

‘메뉴의 다양성’의 필요성은 모든 연령대가 약간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남자가 여자보다 메뉴가 다양해져야 한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더 컸다($p<.05$). ‘가격의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20대 이하가 30대와 50대보다 한식점에서의 ‘가격의 인하’를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p<.01$). 남·녀 모두 가격이 인하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음식양 감소’의 필요성은 30대, 40대는 음식의 양을 다소 감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특히 4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음식의 양을 감소해야한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컸으며, 10대, 20대, 50대 이상은 음식의 양을 감소할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다른 연령대보다 더 컸다($p<.001$). 남·녀별로 보면 남·녀 모두 음식의 양을 감소할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음식양을 감소할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더 컸다($p<.05$). ‘음식맛 개선’의 필요성은 모든 연령대가 음

식의 맛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연령대가 증가할수록(50대 이상은 제외) 음식의 맛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정도도 컸으나 50대 이상은 음식의 맛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40대 이하보다 작았다($p<.001$). 남·녀별로 보면 남·녀 모두 음식의 맛이 좀 더 개선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재료의 신선도 개선’의 필요성은 모든 연령대가 재료가 더 신선해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30대~4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재료가 신선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더 컸다. ($p<.01$) 이를 남·녀별로 보면 남·녀 모두 재료가 더 신선해져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음식의 외관개선’의 필요성은 모든 연령대가 음식의 외관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50대 이상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음식의 외관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더 작았다($p<.001$). 남·녀별로 보면 남·녀 모두 음식의 외관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음식과 식기의 위생성 개선’의 필요성은 모든 연령대가 음식과 식기의 위생성을 개선해야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남·녀별로 보면 남·녀 모두 음식과 식기의 위생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식기디자인의 전통성 추구’에 대해서는 모든 연령대가 식기 디자인의 전통성을 추구해야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40대 이하가 50대 이상보다 식기 디자인의 전통성을 추구해야한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더 컸다($p<.01$). 이를 남·녀별로 보면 남·녀 모두 식기 디자인의 전통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Table 11> A demand to Korean style restaurants by age

	10-19	20-29	30-39	40-49	≥ 50	F-value
Various menu	3.52±1.05	3.37±1.18	3.26±1.17	3.20±0.99	3.26±0.94	1.753
Reduction of price	3.79±0.92 ^b	3.71±0.93 ^b	3.44±0.89 ^a	3.64±0.81 ^{ab}	3.46±0.73 ^a	3.385**
Reduction of quantity	2.49±1.19 ^a	2.86±1.08 ^{bc}	3.01±0.96 ^c	3.29±1.01 ^d	2.63±0.82 ^{ab}	10.965***
Improvement of taste	3.81±0.95 ^b	3.72±0.95 ^b	3.90±0.80 ^{bc}	4.13±0.73 ^c	3.48±0.86 ^a	7.125***
Freshness of material	3.99±0.94 ^a	4.00±0.80 ^a	4.27±0.65 ^b	4.30±0.77 ^b	3.99±0.74 ^a	4.556**
Food appearance	3.81±0.97 ^b	3.86±0.91 ^{bc}	4.06±0.78 ^c	4.07±0.79 ^c	3.40±0.85 ^a	8.553***
Sanitary of food · vessels	4.15±0.92	4.15±0.88	4.30±0.66	4.25±0.77	4.01±0.72	1.663
Traditional design of vessels	3.64±1.07 ^b	3.54±1.07 ^b	3.48±0.99 ^b	3.65±0.97 ^b	3.18±0.84 ^a	3.382**
Rapid management of order	4.01±0.83 ^c	3.84±1.05 ^{bc}	3.69±0.82 ^{ab}	3.51±0.93 ^a	3.88±0.72 ^{bc}	5.627***
Making traditional food like fast food	2.99±1.21 ^b	2.66±1.24 ^a	3.23±1.08 ^b	3.01±1.16 ^b	3.01±1.04 ^b	3.940**
Fusion with western material and cookery	2.99±1.18 ^c	2.63±1.14 ^b	2.80±1.09 ^{bc}	2.56±1.05 ^b	2.25±0.75 ^a	7.106***
Reduction of unnecessary side dishes	3.34±1.09 ^{bc}	3.30±1.13 ^b	3.60±1.01 ^{cd}	3.66±0.96 ^d	2.91±1.01 ^a	7.250***
Advertisement	3.70±0.88 ^b	3.61±1.00 ^b	3.57±1.00 ^b	3.53±0.99 ^b	3.28±0.71 ^a	2.911*
A meal for 1 person	3.52±1.14 ^a	3.53±1.18 ^a	3.87±0.93 ^b	4.00±0.96 ^b	3.84±0.70 ^b	5.492***
Cleanness of toilet	4.21±0.83 ^{ab}	4.19±0.96 ^{ab}	4.37±0.62 ^b	4.42±0.77 ^b	4.10±0.61 ^a	2.835*

* $p<.05$ ** $p<.01$ *** $p<.001$

<Table 12> A demand to Korean style restaurants by gender

	Males	Females	T-value
Various menu	3.46±1.07	3.24±1.08	2.496*
Reduction of price	3.70±0.94	3.58±0.83	1.696
Reduction of quantity	2.73±1.13	2.93±1.03	-2.329*
Improvement of taste	3.82±0.92	3.81±0.87	0.115
Freshness of material	4.04±0.88	4.15±0.75	-1.679
Food appearance	3.79±0.91	3.92±0.89	-1.744
Sanitary of food · vessel	4.11±0.84	4.23±0.80	-1.805
Traditional design of vessels	3.50±1.00	3.56±1.04	-0.703
Rapid management of order	3.76±0.95	3.84±0.86	-1.056
Making traditional food like fastfood	2.80±1.20	3.10±1.15	-3.100**
Fusion with western material and cookery	2.70±1.15	2.68±1.06	0.200
Reduction of unnecessary side dishes	3.42±1.09	3.34±1.07	0.859
Advertisement	3.49±0.98	3.63±0.89	-1.846
A meal for 1 person	3.54±1.14	3.86±0.95	-3.769***
Cleanness of toilet	4.19±0.87	4.32±0.73	-1.992*

* p<.05 ** p<.01 *** p<.001

‘주문처리시간의 신속성’의 필요성은 모든 연령대가 주문처리시간이 좀 더 빨라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10대가 30대~40대보다 주문처리시간이 빨라져야 한다는 인식이 더 컸다(p<.001). 남·녀별로 보면 남·녀 모두 주문처리시간이 좀 더 빨라져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전통음식의 패스트푸드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20대를 제외한 다른 연령대가 20대보다 전통음식이 패스트푸드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더 컸으며 20대는 전통음식이 패스트푸드화될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였다(p<.01). 남·녀별로 보면 남자는 전통음식의 패스트푸드화가 필요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여자는 전통음식의 패스트푸드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서 남·녀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1). 1996년 울산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김³²⁾의 연구에 의하면 ‘전통음식의 패스트푸드화’에 대해서 남녀 대학생 모두 ‘전통음식의 패스트푸드화’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바람직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다’로 본 조사의 20대가 ‘전통음식의 패스트푸드화’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서양재료와 서양조리법의 혼합’의 필요성은 모든 연령대가 ‘서양재료와 조리법의 혼합’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50대 이상이 ‘서양 재료와 조리법의 혼합’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40대 이하보다 컸다(p<.001). 남·녀별로 보면 남·녀 모두 서양의 재료와 조리법을 혼합할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였다. 불필요한 반찬이 줄어들어야 하는 필요성은 50대 이상을 제외한 다른 연령대는 불필요한 반찬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50대 이상은 반찬을 줄일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어서 연령대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1). 남·녀별로 보면 남·녀 모두 반찬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한식점의 홍보의 필요성은 모든 연령대가 한식점의 홍보가 잘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40대 이하가 50대 이상보다 한식점의 홍보가 잘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p<.05). 남·녀별로 보면 남·녀 모두 한식점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1인 상차림’의 필요성은 모든 연령대가 1인 상차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30대 이상이 20대 이하보다 1인 상차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더 컸다(p<.001). 남·녀별로 보면 남·녀 모두 1인 상차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1인 상차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더 컸다(p<.001).

‘화장실의 청결성’에 대한 필요성은 모든 연령대가 화장실이 더 청결해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30대~40대가 50대 이상보다 화장실이 청결해져야 한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더 컸다(p<.05). 이를 남·녀별로 보면 남·녀 모두 화장실이 더 청결해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화장실이 더 청결해져야 한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더 컸다(p<.05).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서울 지역의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하여 연령별·성별로 외식행동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 대상자는 남자가 46.5%, 여자가 53.5%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10-19세는 26.3%, 20-29세는 24.6%, 30-39세는 16.8%, 40-49세는 18.7%, 50대 이상은 13.6%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이 인식하는 경제수준은 과반수가 중류였고, 조사 대상자들의 직업은 중·고등학생이 26.5%, 대학생이 24.4%, 전문직이 14.4%, 전업주부가 13.1%, 사무직이 9.7%등이었다. 가족형태는 대부분이 핵가족이었으며 가족수는 3-4인이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이상이 과반수였다.

2. 외식 행동

외식하는 동기는 10대와 40대는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였고, 20대는 '사교적인 목적'이었으며, 30대는 '식사준비가 번거로워서'였고, 50대 이상은 '맛을 즐기기 위함'이었다($p<.01$).

외식시 음식점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음식의 맛' (42.5%~56.6%)이었지만, 20대는 '음식점의 분위기'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p<.001$).

아침, 점심, 저녁의 외식상황을 보면 아침은 모든 연령대가 '가정식'을 먹는 비율이 높았고(61.4%~91.8%), 점심은 40대 이하는 '학교·직장 식당/매점' (42.7%~78.7%)을 많이 이용하였다. 저녁은 20대를 제외한 다른 연령대(67.5%~80.0%)는 대체적으로 가정식을 먹었지만 20대는 과반수(54.4%)가 저녁에 '외식'을 하였다.

아침, 점심, 저녁의 외식횟수는 아침에는 대부분(83.7%)이 외식을 하지 않았으며 점심에는 '일주일에 4-5번 정도', 저녁에는 20대의 과반수 이상(60.0%)이 '일주일에 2-3번 이상' 외식을 했으며, 30대와 50대는 과반수 이상(약 60.0%)이 '일주일에 1회 이상' 외식을 하였다.

외식시 선호하는 음식점은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할 때'는 모든 연령대가 '한식점'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한식점'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 '사교적인 목적'으로 외식을 할 때 20대 이하의 '패스트푸드점'을, 30대 이상은 '한식점'을, '일식점'은 50대 이상이 가장 선호하였다($p<.01$). 남녀별로 보면 '한식점'을 선호하는 비율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고, '패스트푸드점'을 선호하는 비율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다($p<.01$).

음식점을 선택하는 이유는 한식점, 일식점은 '입맛에 맞기 때문에', 양식점은 연령층이 낮을수록 '음식이 입맛에 맞기 때문에' 선택한다는 비율이 높았고 연령층이 높을수록 '사교장으로 적당하기 때문에' 선택한다고 하였다. 중국음식점을 선택하는 이유는 '가격이 적당하기 때문에'였고, 패스트푸드점과 간이음식점(분식점)을 선택하는 이유는 '먹기가 간편해서'였다.

'한식점에 대한 요구사항'은 모든 전 연령대가 맛의 개선, 재료의 신선도, 음식의 외관개선, 음식과 식기의 위생성 개선, 주문처리 시간의 신속성, 1인 상차림, 개인 배식제도 도입, 화장실의 청결성에 대해서 높은 요구도를 보였다.

위의 결과를 보면 모든 연령층이 외식시 한식점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우리 입맛에 대한 익숙함이나 영양성에서는 긍정적으로 인식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한식점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음식의 외관 개선', '음식과 식기의 위생성', '화장실의 청결성'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바와 같이 한식점의 개선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10대와 20대들은 패스트푸드점을 간편하고 사교적 장소로 적당하다는 이유로 많이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 음식을 장기간 섭취하였을 때 영양성 질병이 예측되며 국민건강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나 가정에서, 또 매스컴 등에서는 바른 영양교육으로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10대, 20대들이 좋아할 수 있는 한국 음식의 패스트푸드화가 표준 레시피 및 표준화된 조리 방법을 바탕으로 더 많이 개발되고 서비스 방법과 매장관리에 대해서는 서구식 패스트푸드점의 경영기법을 참고하여 발전시켜야겠다.

■ 참고문헌

- 1) Oho JH. Development history of Dining out industry in Korea. p115, 1995
- 2) Statistical year book in Korea. p167, 1999.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 3) Jum SR. Present condition of Dining out industry and development plan of Korea. Chungang University master degree thesis. 1997
- 4) Chun HK. A study on the factors which influence evaluation of restaurants service. Seoul national University master degree thesis. 1997
- 5) A direction and subject of a traditional food for internationalism.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ietary culture, p 23. Seoul 2000
- 6) Leem JB, Lee HJ, Jang YK. Life style and dietary food life. Korean J. home economics. 28(3):33-52, 1990
- 7) Kim HK. The study on marketing strategy by behaviors change of consumers on Dining out. Yonsei University master degree thesis. 1989
- 8) Kim HS. The study on Dining out behaviors of city dwellers. Sejong University master degree thesis. 1991
- 9) Park GS, Shin YJ. A study on eating habits of businessmen in urban areas. Korean J. dietary culture. 10(5): 13-19 1995
- 10) Lee GC. The study on consumers behaviors of industry society. Korean J. home economics 27(2):10, 1989
- 11) Kim CI, Lee SY, Yoon EY, Lee KS, Choi KS. The study on Dining out behaviors of fast food consumers. Korean J. dietary culture 1(3): 295-309, 1986
- 12) Kwak TK, Rew ES. Nutritional concerns for fast foods

- by consumer and fast food franchisers and evaluation of nutrient adequacy. Korean J. food & cookery science, 7(3): 281-289, 1992
- 13) Gu NS. Survey study on recognition and preference of college students on Korean traditional food. Korean J. dietary culture 10(4): 357-367, 1995
 - 14) Cho HS. A study on college students' dietary behavior and consciousness of Korean traditional food in Julianamdo. Korean J. dietary culture 12(3): 301-308, 1997
 - 15) Yang IS, Lee JM, Cha JA, Han JJ.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of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towards restaurants service attributes. Korean J. dietary culture 11(5), 1996
 - 16) Jo RW. Studies on dietary life of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with special reference to dietary habits, food favorites and nutritional status. Korea university master degree thesis. 1974
 - 17) Lee YM. Dining out behaviors and attitude toward Korean foods in adult. Yonsei University master degree thesis. 1981
 - 18) Shin MK, Seo ES. A comparative study on preference of food and dietary habits of college students. Korean J. home economics 33(4):89-106, 1995
 - 19) Moon HK, Jang HR, Cho EY, Choi HM. A study on Korean meal patterns by a comparative study on national nutrition-1989. Korean J. dietary culture 7(3):271-279, 1992
 - 20) Oho EJ. A study on dietary habits and health management of college students. Hanyang University master degree thesis. 1987
 - 21) Ahn HK. A study on dietary behaviors and education about nutri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Chungang University master degree thesis. 1994
 - 22) Ro HK, Factors in food selection and Dining out behavior of food college students. Korean J. dietary culture 14(3): 241-249, 1999
 - 23) Kim JJ.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dietary life management. Sungshin womens' University master degree thesis. 1980
 - 24) Lee YM, Lee KW, Chang HK. Dining out behaviors and attitude toward Korean foods in adult. Korean J dietary culture 11(3): 317-326, 1996
 - 25) Food yearbook in Korea. 2000
 - 26) Ahn SJ. A study on Dining out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 Seoul. Korean J. dietary culture 4(4): 131, 1989
 - 27) Kim WK. A study on the homemaker's interest in dietary life and the knowledge of cooking principle and method. Korean J. dietary culture, 7(3):151-171, 1992
 - 28) Moon JW, Ahn JD. A survey on housewives' dining out behavior in Pusan, 11(3): 359-367, 1996
 - 29) Cho MJ. A comparative study on dietary behaviors and food percep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classified by body weight and gender. Chungang University master degree thesis. 2000
 - 30) Jang EJ, Lee YK, Lee HJ. A comparative study on dietary life behaviors about traditional food. Korean J. dietary culture 11(2): 179-198, 1996
 - 31) Cho JM, Han YB. A study on dietary behaviors and recognition about fast food of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 home economics 8(2):105-119, 1996
 - 32) Kim HK. Fast food consumption patterns of college students in Ulsan. Korean J. dietary culture, 11(1): 131-141, 1996